

Style 1 조선일보

OCTOBER 2016
vol.148

RALPH LAUREN

RALPHLAUREN.COM/COLLECTION

SEOUL DOSAN PARK Sinsa-dong 631-34 02 545 8200



BVLGARI

ROMA

SERPEN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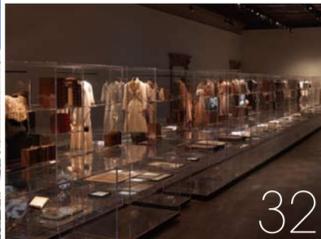


NEW YORK, 2016



MICHAEL KORS

MICHAELKORS.COM



32



표지에 등장한 아이지는 윌프르덴의 2016 F/W 컬렉션 광고 비주얼이다. 이번 시즌 윌프르덴 컬렉션은 장인 정신과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럭셔리를 선보인다. 문의 02-545-8200



24



10

- 14 **A STROLL IN VENEZIA** 베니스의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는 이 아름다운 수상 도시가 칸타파리리 아트의 보고라는 점도 한몫한다. 현대적인 아트 도시로 거듭난 베니스의 흥미로운 면면을 소개한다.
- 16 **FOREVER ONE** 기록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에는 다 이유가 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단독 혹은 다른 반지와 레이어링해도,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럭셔리 주얼리 하우스의 시그니처 링.
- 18 **NEW EVOLUTION** 클래식한 모델의 변주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안한 최초의 신제품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뉴 워치 컬렉션.
- 20 **GET IT TRENCH** F/W 시즌의 상징인 트렌치코트의 다양한 변주와 함께 그에 꼭 어울리는 슈즈를 만나보자.
- 23 **ELEGANTLY LUSTROUS** 국내 여배우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화보 촬영은 물론 리얼 웨어에서 '진짜로' 애용하는 파운데이션은?
- 24 **URBAN DANDY** 빅 패션 하우스마다 색다른 매력과 유니크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번 시즌의 맨즈 트렌드. 이제 즐길 시간이다. Are you ready?
- 32 **LA DONNA CHE LEGGE** 새빨을 이해하고 싶다면 베니스에 있는 카 페사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문화 사발전. <책 읽는 여자(LA DONNA CHE LEGGE)> 전시회를 방문하라.
- 34 **TRUE GLAMOUR**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하이 컬래보레이션을 일으킨 몽블랑(Montblanc)의 여성 컬렉션, 보행의 우아한 자세를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
- 35 **THE MARK OF TRUE DESIGN** 늘 새롭고 액티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스위스 워치 메이커 브랜드 미도가 지난 10월, 2016년 비젤에서 선보인 신제품과 함께 국내 아티스트 3인의 협업으로 완성한 아티피스를 선보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 36 **EDITOR'S PICK** 윤광 메이크업에 딴 컬러 포인트 메이크업, 가을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뷰티 아이템을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엄선했다.
- 37 **ONE & ONLY**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1% 미만의 가치를 담은, 고귀한 원석을 선별해 다이아몬드 속 깊은 곳에 고유 번호를 새긴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를 소개한다.
- 38 **ROYAL BRITISH DAY** 박진감 넘치는 폴로 경기와 전통이 느껴지는 영국식 피크닉, 이듬달과 매력적인 스토리가 담긴 만찬이 함께한 로얄 살루트 브리티시 데이. **THE ART OF SILK**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새롭게 선보인 에르메스의 '크레이지 카레(Crazy Carre)' 전시.
- 39 **MODERN CHIC** 소녀에서 여인까지 아우르는 눈빛을 지닌 배우 박소혜. 그녀의 오라만큼이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장식의 판데멘탈 컬렉션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 40 **AN INSPIRATIONAL JOURNEY WITH DOM PÉRIGNON P2**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그중에서도 별들의 고장인 할리우드에서 영감 넘치는 돔 페리뇽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아가 데미상에 빛나는 배우 크리스토프 왈츠를 만나 '궁극의 경험을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빈티지 돔 페리뇽 P2 1998'에 빛대 인생과 예술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을 들어봤다.

Style 조선일보 Issue.148 October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RICHARD MILLE



CALIBER RM 07-01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지하 1층 • 02) 2230 1288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Jewel COLORED DIAMOND

희귀함과 특별함에 투자 가치까지 있는 새로운 스톤으로 각광받고 있는 컬러 다이아몬드 주얼리.

(왼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2.38카럿의 페어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메인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타이로 모티브로 세팅한 조세민 오브 프랑카 에르 옐로우 다이아 링 가렛 미팅 쇼세, 꽃잎을 이루는 미루즈 컷 다이아몬드를 우회하게 세팅한 빅토리아 키 랜던트 1천7백만원대, 민화경의 신비롭고 변화무쌍한 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칼레아도스코프 키 랜던트, 중앙에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천4백만원대 모두 **타카미**, 0.53카럿의 최상급 페어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밴드까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링 7백만원대 **타카미**, 호르지개 핀 보닛 핑크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아름답게 표현한 핸드 플래팅 링 9백만원대, 중앙에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카바일 모티브의 카보마일 미니 링 1백90만원대 모두 **루시에**, 에디터 **김유진**

Fashion ULTIMATE EXPRESSION

이제는 컬렉션에 등장한 의상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지난 9월 랄프로렌이 뉴욕 패션 위크에서 런웨이-투-리테일 콘셉트의 여성 컬렉션 런웨이를 선보인 것.

내년에 50주년을 맞는 이 유서 깊은 브랜드가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에도 전장을 단졌다. 랄프로렌은 '10년 시즌 최초로, 런웨이 여성 컬렉션의 상품을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궁극적인 럭셔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컬렉션의 모든 룩, 모든 액세서리는 컬렉션 직후 바로 전 세계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 시즌 먼저 선보이는 컬렉션의 원칙 때문에 겨울에 봄 상품을, 봄에는 여름 혹은 가을 상품을 본 뒤 1년이 지난 후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랄프로렌이 이와 같은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이 같은 패션 업계의 원칙에 새로운 물을 도입한 것. 소비자들 위해 실감는 쇼케이스를 선보이고 그것을 바로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게다가 페이스북, 유쿠, 네이버 라인, 그리고 카카오킴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에서 패션쇼 자체가 라이브로 스트리밍되어 뉴욕에서 열리는 패션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다양해졌다. 패션쇼에 등장한 제품들은 소가 끝나는 대로 RalphLauren.com과 비벌리힐스, 시카고, 보스턴, 밀라노, 뽕 허버, 코스타 메사 등 미국의 주요 플래그십 스토어와 홍콩의 프린스 빌딩, 일본의 오모데산도 스토어, 런던의 본드 스트리트, 두 개의 파리 스토어에서 판매된다. 그 밖에 버그도프 굿맨, 삭스피 프사베바, 마이테라사드겐, 마큐리 등의 톱 리테일 파트너를 통해서도 선보일 예정이니 판매와 유통까지 혁신한 랄프로렌의 변화가 패션 필드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지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올라가는데도 계속되는 하이엔드 카의 위용

세상에 이미 자처하는 많고 많다지만 유혹적인 신화는 언제나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올 가을에도 디자인이 뒀든 성능이 뒀든 희소성이 뒀든 하이엔드 카의 진화는 멈출 줄을 모른다. 뉴 7 시리즈로 럭셔리 드라이빙의 새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BMW 역시 탄생 1백 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를 통틀어 1백 대만 생산되는 한정판 BMW 인디비주얼 7A 시리즈 더 넥스트 100 이어서 에디션을 선보였다(국내에는 750Li xDrive 7번의 단 2대만 판매). 전 세계에서 단 1백 대만 판매되는 유일한 글로벌 에디션이라고, BMW를 상징하는 인디비주얼 외장 색상으로 새롭게 개발된 '센테니얼 블루(Centennial Blue)' 컬러가 단연 돋보이며 내장 소재나 전반적인 인테리어 요소들도 최고급 시안을 적용했다. BMW는 '베스트셀링 기술인 528에 첨단 안전주행 보조 시스템과 럭셔리 가죽 소재 등 최고급 옵션을 새롭게 추가한 528i 스페셜 에디션도 선보였다. 이탈리아 럭셔리 강성을 대표하는 브랜드 마세라티는 올해 파리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플래그십 세단인 '더 뉴 쿼트로포르테(The New Quattroporte)'를 국내 시장에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선보인 6세대 쿼트로포르테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마세라티의 디자인 철학인 '럭셔리와 스포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프론트 그릴에 상이 코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참신한 요소들이 대거 반영됐다. 10월 중 신차를 내놓는 메르세데스-벤츠 코카라는 프리미엄 SUV 라인업을 확장해 눈길을 끈다. S-클래스 기반의 플래그십 SUV 모델인 더 뉴 GLS, 그리고 SUV와 쿠퍼를 결합한 형태의 브랜드 최초 '스포티 SUV'인 더 뉴 GLE 쿠퍼가 그 주인공들. 페라리는 최근 파리모터쇼에서 브랜드 70년 기념 한정판 모델을 선보이면서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87톤 터보 엔진을 탑재한 4인승 모델인 'GTC4루스T'도 세계 최초로 공개해 화제가 됐다. 에디터 **고성현**



Beauty TROPICAL RECIPE

건조한 피부, 칙칙함, 각질 등 들쭉날쭉한 환절기 날씨에 지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줄 특급 처방 바로 피부에 즉각적인 생기 에너지를 충전해줄 비타민이 듬뿍 담긴 과일 성분의 코즈메틱이 답이다. 에디터 **배미진**, 이자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땀이 피로할 때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과 같이, 지친 피부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퍼푸드가 필요하다. 직접 먹어도 좋은 영양 가득한 성분으로 만든, **클라린스 엑스트라 퍼핀 에센스**는 마치 피부가 마시는 건강한 과일 주스를 떠오르게 한다. 이 한 통에는 무화과뿐 아니라 레몬 타인, 바나나 추출물과 수분 공급에 특효인 히알루론산이 함유돼, 비르는 즉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꿀 수 있다(200ml, 6만3천원). 석류가 여자에게 좋다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여기 석류를 활용한 화장품의 대표 주자라 불리는 에스티 로더에서 **뉴 트릭서스 바이올리타 8** 레디언트 에이지 로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생리호르몬으로 추출한 석류 성분과 수퍼푸드인 녹차 추출물로부터 피부 자극을 줄이고 에너지를 공급해, 단 8일 만에 한층 밝아진 피부 톤을 경험할 수 있을 것(200ml, 5만5천원). 최근 현대인을 위한 수퍼푸드인 아보카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며, 뷰티 업계에서도 아보카도를 주성분으로 한 뷰티 아이템들이 각광받고 있다. **엘비타 이보카도 뷰티 오일**도 그중 하나. 유기농 이보카도 열매 과육에서 추출한 이보카도 오일은 피부 보습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 기름, 거칠거칠한 건조한 피부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50ml, 4만2천원). 지친 피부에 활력을 더해주고, 피부 컨디션을 한껏 끌어올리니 마스크팩이 최고다. 오랜 오렌지와 레몬 등 감귤류 과일 추출물이 무려 50% 들어간 **프래쉬 바이탈리타 바이브런스 부스팅 페이스 마스크**는 정말 같은 텀블링같은 텍스처가 특징이다. 이집트 또는 자레, 피부에 촉촉한 윤기와 탄력이 필요할 때마다 얼굴 위에 듬뿍 올려 사용해보자(100ml, 9만원). 에디터 **배미진**



Exhibition DDP를 수놓은 김영원 조각전 (나-미래로)

수준 높은 인체 조각 작품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야외 공간에서 김영원 작가의 작품 17점을 감상할 수 있는 (나-미래로) 조각전이 2017년 2월 26일까지 계속된다.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한 인체 조각으로 한국 조각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로 광화문 세종대상 동상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한 김영원(69·전 홍익대 교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DDP 건물을 중심으로 열린다. 전시 제목 '나-미래로'의 '나'는 작가의 인체 조각 작품이자 관람객 자신을 뜻한다. 조각품이 미래로 다리 위에 서서 관람객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끌기도 하고, 이 길을 따라 '미래로' 나아가려고 소리치기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외부에서 DDP로 들어오는 관문인 미래로 인구에 놓인 8m 높이의 대형 청동 인체 조각 '그림자의 그림자' 같은 행인들의 눈길을 절로 사로잡는 분위기를 풍긴다. 8차선 정충단로를 마주한 DDP 정면부에 자리 잡은 높이 8m의 '그림자의 그림자-꽃이 피다'도 시선을 잡아끈다. 이 밖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릴적 광장, 팔기라, 잔디 언덕, 일루미네이션 등 1.8~5m 높이의 대형 조각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리얼리즘 인체 조각의 대가인 작가의 작업을 구분 짓는 세 시기의 대표작을 아우를 수 있다. 작품을 따라 가다 보면 사색이 갖든 '아트 산책'이 절로 완성될 수도 있다. 에디터 **고성현**



Salvatore Ferragamo



for him

Selection

깊고 차분한 브라운에 블루를 더해 경쾌하고 럭셔리하다. 비비드함과 시크함을 동시에 표현한 남성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영국 승마용품에서 사용하던 부드러운 브라운 가죽 소재를 적용한 백팩. 30X31cm, 1백70만원대 비버리

스팽글 장식으로 나비 모티프를 표현한 클러처. 25X25cm, 1백70만원대 비버리

부드러운 블루 색상의 보타이 230만원대 볼레제가베나.

세인스피어 사커 400주년을 기념해 세인스피어 핏 디자인에 장미꽃 조각 에디션 한정판. 1백60만원대 몽블랑.

바지를 살짝 풀어서 매치하면 더욱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청시 부츠 30만원대 볼로 알프르렌.

따뜻한 컬러의 니트에 베스트와 코트를 레이어드한 후 록 놀라워워인 잇스프를 연출함. 31만원대 볼로 알프르렌스키.

스매와 코트 밑단을 블랙 컬러로 그래픽이 선한 캐주얼 코트 6백30만원대 발렌타노.

백 모자에는 고기능 디자인 슈츠의 디테일을 더한 배틀 장갑을 더함. 모스톤백, 48X22cm, 2백10만원대 로조.

직용 승리에 따라 변하는 송이치 가죽 스트랩이 특징인 멀티포트 크로노그래프 워치. 2백40만원대 미도.

패시비티 디자인으로 시크한 느낌 연출. 1백20만원대 비버리.

오버사이즈 블루 미러 렌즈가 돋보이는 선글라스 60만원대 디타 by 니스텔.

브렌드 특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접목한 빈티지 매력이 돋보이는 러닝화 가격 미정 볼루티.

스페셜리메이트 유원장 이스트포인트 이세팅 장수형 에디션 한정판.

모든 액세서리는 제타인 블루를 컬러 업이 주 소재로 제작. 24X35cm, 120만원대 비버리 배너.

비버리 080-700-8800
발렌타노 02-6905-3610
볼레제가베나 02-3444-0077
볼로 알프르렌 02-6004-0221
볼로 알프르렌스키 02-3433-6501
몽블랑 02-514-0900
니스텔 02-512-2225
렌디 02-2056-9023
몽블랑 1670-4810
토즈 02-772-3525
볼루티 02-547-1859
미도 02-3149-9599
루이 비통 02-3432-1854
보타이 배너 02-6905-3791
규피 1577-1921

VOLEZ
VOGUEZ
VOYAGEZ

여행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레플리카 배지 20만원대 루이 비통.

평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패딩 아우터 1백59만원대 몽블랑.

GABRIEL-KANE DAY-LEWIS, MORGANE POLANSKI



신세계백화점 본점 6층 +82 2 310 1678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여성) +82 2 3479 1619 / 6층 (남성) +82 2 3479 1649

Fay

FAY.COM

피트라인 포켓 포인트
캐시미어 니트 재질
2백50만원대 에스카다.



캐츠 아이 프레임
선글라스 77만원대
멘디.



강렬한 레드 색상의 사파리 클러치 백, 18x13cm,
가격 미정 로저비비에.



치렁치렁한 도롱이
있는 록에 힐을 더해줄
브라운 컬러 록 굽의
1백만원대 에르메스.



심플한 다이얼에
세련된 레드 컬러
악아 가죽 스트랩이
어우러진 슬림
데르메스 워치
9백만원대
에르메스 워치.



블랙과 화이트,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돋보이는 앵글루스
1백40만원대 토즈.



타이거 헤드 장식이
돋보이는 갈라폴한 파이톤
소재의 디오나시스 백,
27.5x21cm, 7백만원대
구찌.

ASERVIA의 상징
인 에르메스 워치
에르메스 워치, 갈색 가죽 스트랩, 1백10만원대

for her Selection

베이지와 브라운 등 어스 컬러의 강세가 이번 시즌에도 여전하다. 다만 강렬한 레드 컬러를 곁들인 산뜻한 매치로 룩에 생기를 살리는 것이 포인트!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심플한 디자인의
베이지 컬러 가죽 벨트,
51만5천원 카르띠에.



레드와 골드 조합에
보송한 스카피의 장식을
더한 앵글루스 힐
1백30만원
크리스찬 루부앵.



가을 느낌을 자아내는 카펫 컬러 헤드 37만원대 알렉산더 매튜.



원형 모티브의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디올.



남성의 브리프케이스를
축소해놓은 듯한 미니멀한 클러치 백,
24.5x13.5cm, 3백30만원대 델보.



레드 컬러를 인어 꼬리가 보린의
레드 핏츠 2백90만원
로저비비에.



멘디 02-2056-9023
에르메스 02-544-7722
로저비비에 02-6905-3370 구찌 1577-1921
디올 02-513-0300 토즈 02-3438-6008 카르띠에 1566-7277
크리스찬 루부앵 02-6905-3795 루이 비통 02-3432-1854 델보 02-3449-5916
알렉산더 매튜 02-3433-6501 올세인트 오버니 02-3444-0077 에르메스 워치 02-3015-3283
토즈 02-3438-6008 에스카다 02-3442-5760

모노그램 패턴의 사각 미니 토트백, 12x17cm, 4백만원대 루이 비통

압도적인 변화, 한 순간에 깨어나는 피부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



DECORTÉ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38-6118 무역센터점(2F) 02-3467-8471 천호점 02-2225-8989 중동점 032-623-2151 판교점 031-5170-3194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02-310-5062 강남점(2F) 02-3479-6050 AK PLAZA 분당점 031-703-3478
롯데백화점 본점(B1) 02-772-3157 잠실점 02-2143-7976 온라인쇼핑몰 Lotte.com/mail.shinsegae.com/Hmall.com/akmall.com/Lotteimall.com/cjmall.com/GSshop.com/elliotte.com 고객센터 080-568-3111

베니스가 아름다운 고도(古都)가 아니라 현대적인 창조 도시로 자리매김한 이유

a stroll in Venezia

서울대 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의 건축 설계에 참여해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네덜란드의 건축 가장 펠 클하우스는 줄리아 포스카리가 쓴 <Elements of Venice>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저자는 베니스가 영속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오랜 세월이 걸쳐 ‘모더니티(modernity)’의 선두에 자리해온 도시라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그의 말대로 베니스의 변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는 이 아름다운 수상 도시가 컨템퍼러리 아트의 보고라는 점도 한몫한다. 현대적인 아트 도시로 거듭난 베니스의 흥미로운 면면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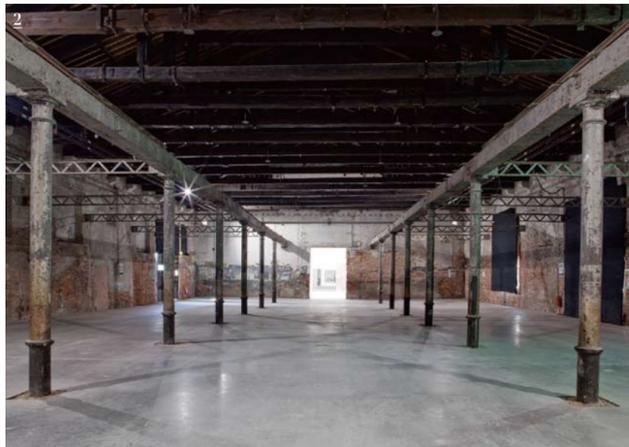


“모든 도시 가운데 파리 다음으로 이 물의 도시를 사랑한다. 난 베네치아에서 태어나고 싶었다.” 프랑스의 지성 미셸 드 몽테뉴는 <수상록>에 이렇게 적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운하, 유유히 떠다니는 곤돌라, 미로 같은 골목들, 그리고 산마르코 광장의 펑크 빛 두갈레 궁전... 베니스에 도착해 물 위에 떠 있는 이 매혹적인 도시의 자태가 시야에 서서히 들어올 때의 묘한 느낌, 어쩌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해봤다면 몽테뉴의 생각에 가까이 동의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이탈리아인은 말했다. “베니스는 정말 특별하지만 사는 데는 ‘희생’을 치러야 해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도시이지만 사실 물건을 옮기는 따위의 일상적인 일을 할 때는 물길과 좁은 골목이 뭐 그리 편하겠어요.” 그렇다. 대중 교통수단인 수상 버스는 항상 관광객으로 차 있고, 수상 택시는 ‘택시라기엔 몹시 비싸다. 그래서 본심을 떠나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인근 섬 리도(Lido)로 이주하는 이들도 많다고 그녀는 설명했다(산 마르코 광장에서 멀지 않은 리도 섬은 자동차와 택시장, 널찍한 도로가 있어서일까. 뭔가 여유로움이 더 묻어난다).

대지미술이 따로 없다, 물길과 정원 속에 펼쳐지는 ‘휴식 같은’ 비엔날레

그래도 베니스는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웬만한 불편함도 감수할 만큼 묘하게 분위기가 유혹적이다. 그것도 양파 껍질처럼 다채로운 매력이다. 아드리아 해를 낀 이 항구 도시의 별칭만 해도 가면의 도시, 사랑의 도시, ‘곤돌라의 도시’ 등 다양하지 않은가. 하지만 몇 번을 방문해도 베니스가 지겹지 않은 이유가 고전적인 풍경과 낭만 때문만은 아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도시를 물들이고 있다는 점이 큰 작용을 하지 않나 싶다. 특히 컨템퍼러리 아트를 빼놓을 수 없다. 수준 높은 현대 미술과 건축,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가 융합적으로 도시에 우아하고도 역동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래서 ‘아트 산책’을 하노라면 베니스가 절대로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베니스에는 1백 년 넘는 역사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비엔날레(Biennale)가 있다. 홀수 해마다 국제 미술전인 아트 비엔날레가, 짝수 해에는 건축 비엔날레가 열린다. 올해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건축 비엔날레가 오는 11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영구 전시장인 비엔날레 장소는 아드리아 해의 반할 만큼 근사하다. 물길 따라 펼쳐진, 숲 속 휴양지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자체로 ‘예술’이다. 전시는 크게 두 곳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옛 조선소 건물을 활용해 대형 기획전이 열리는 ‘아르세날레(Arsenale)’, 또 하나는 녹음 같은 정원 속에 국가별로 전용관을 둔 ‘자르디니(Giardini, 실제로 ‘정원이란 뜻’)다. 올해는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를 받은 칠레 출신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총감독을 맡아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라는 주제로 아르세날레를 수놓았다. 전쟁과 난민, 경제 위기, 재생, 사회적 건축... 모험과 도전으로 둘러싸인 건축전은 자칫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해석과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보는 재미가 있다.



공간의 미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폰타 델라 도가나(Punta della Dogana)

산 마르코 광장 맞은편에 ‘살루테(Salute)’라는 수상 버스 정거장이 있다. 베니스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역이다. 이 고아한 자태의 대성당과 나란히 멀리서 보면 삼각형의 실루엣을 이루는 장소가 있다. 바로 2009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문을 연 현대미술관 폰타 델라 도가나이다. 도가나(dogana)는 이탈리아어로 ‘세관’이란 뜻으로, 실제로 이 건물은 15세기 베니스의 세관이었다고 한다. 아트는 최고의 럭셔리라는 말도 있지만, 미술관 건축 프로젝트야말로 진정한 럭셔리 아닐까 싶다. 이 대형 프로젝트를 감행한 인물은 프랑스의 부호 프랑수아 피노 회장. 세계적인 미술경매 업체 크리스티를 소유하고 있을뿐더러 구찌,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 우수 럭셔리 브랜드들을 거느린 케링(Kering) 그룹의 수장이다. 엄청난 아트 애호가이자 컬렉터인 피노 회장은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게 리브콜을 보냈고, 건물 레노베이션 비용만 수백억 원을 들여 이 넓은 공간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유중한 나무와 노출 콘크리트의 조화가 시선을 절로 잡아끄는 이 미술관은 안도 다다오다운 탁월한 공간의 미학과 구성, 그리고 베니스 특유의 서정적인 미가 조화롭게 어울려 있다. 아치를 그리는 창틀 사이로 시원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작품들을 보노라면 언제서 미술을 럭셔리리의 최고봉이라고 하든지 새삼 공감하게 될 따름. 작은 전람회장이라는 뜻이 아닌 <아크로카제(Acrochage)>라는 전시가 11월 20일까지 계속되는데 방대한 피노 컬렉션에 포함된 이래 이제껏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시로, 미니멀리즘과 비율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는 공통분모가 엮인다. 무엇보다 관람자에게 공간의 여유를 선사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기 위하여 기획 의도 가운데 하나라는데, 실제로 탁 트인 분위기 속에서 뭔가 편안한 개방성이 묻어난다.

현대미술의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팔라초 그라시(Palazzo Grassi)

사실 베니스를 무대로 한 피노 회장의 아트 사랑은 더 일찍 켜졌다. 베니스시로부터 인수한 18세기 궁전 팔라초 그라시를 리모델링해 2006년 현대미술의 정수를 담은 장소로 꽃피우게 했기 때문이다. 궁전인 만큼 고전적인 오라를 뽐내내는 팔라초 그라시의 공간에 실험 정신 가득한 각종 예술 작품이 들어선 모습을 보는 건 상당히 흥미진진한 일이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쳐 이 미술관은 피노 회장의 풍성한 컬렉션을 비롯해 걸출한 큐레이터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 그리고 루돌프 스타링, 우르스 피셔 같은 쟁쟁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개인전도 열면서 창조적인 아트 도시로서 베니스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 토포했다. 제프 쿤스의 커다란 강아지 조각, 주방용품을 재료로 만든 수보트 굽터의 해골 작품 등을 운하가 흐르는 미술관 야외에 전시해 화제가 된 것도 팔라초 그라시였다. 2009년 피노 회장의 컬렉션으로 꾸민 대형 기획전 <매핑 더 스튜디오(Mapping the Studio)>는 당시 개관한 폰타 델라 도가나와 팔라초 그라시에서 동시에 장기간 진행되면서 피노만의 비

엔날레가 펼쳐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로 나왔다. 현재 팔라초 그라시에서는 ‘회화의 연금술사’로 불리기도 하는 신표현주의 예술가 시그마르 폴케(Sigmar Polke, 1941~2010)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오는 11월 16일까지). 폴케는 폴란드 출신의 독일 화가로 전통 회화 기법이나 재료를 부정하고 특정한 양식에 종속되기를 거부한 혁신가로 대중매체와 영화, 과학적 영상 기술에서 채택한 기본 이미지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거나 가정용품, 페인트, 래커 등과 혼합하기도 했다. 상하울루비엔날레 회화상 수상(1975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1986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폴케의 작품들, 특히 대형 작품들을 대서적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팔라초 그라시의 우아하기 그지없는 공간에서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설적인 컬렉터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 눈부신 아트 저장소

아트를 잘 몰라도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은 웬만하면 들어보았을 것이다.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 덕분인 텐테, 그 설립자인 솔로몬 구겐하임에게는 현대미술사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조카딸이 있었다. 뛰어난 안목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후원으로 유명한 위대한 컬렉터, 페기 구겐하임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파리에서 살았지만 유대인이었기에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세기 갤러리(The Art of This Century Gallery)’를 설립한다. 피카소, 달리, 자코메티, 칸딘스키 등 당시 유럽의 전위적 작가들을 과감히 소개하고 미국 신진 작가들을 후원한 이 갤러리는 미술의 중심지를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기고 예술 사조를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레로 허드렛일을 하던 잭슨 폴록을 발굴한 일화가 유명하다. 일찍이 거장이 될 재목을 발굴하는 안목이 탁월했던 그녀는 사생활에서는 사모 드라마틱한 삶을 산다(소년 시절 아버지를 타이페닉호 침몰 사고로 잃었고, 당대의 아티스트들과 불꽃같은 사랑을 했다). 두 번째 남편인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와 이혼한 뒤 그녀는 세기 갤러리를 폐점하고 베니스로 가서 여생을 보낸다. 페기가 실제로 살았던 집, 그리고 컬렉션 일부를 토대로 문을 연 곳이자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PGC, 폰타 델라 도가나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다)이다. 그녀의 소장품은 사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기증됐으므로 PGC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베니스 분관인 셈이다. 엄청나게 큰 집은 아니기에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거장들의 눈물이 날 만큼 멋진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다. 예컨대 소담스러운 정원에 친근하게 놓인 조각은 자코메티, 브랑쿠시 같은 대가들의 작품들이며 실제로는 그녀의 남편이었던 에른스트의 작품은 물론 파울 클레, 잭슨 폴록, 키리코, 칸딘스키, 몬드리안 등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내 집 소장품처럼 보는 게 다소 황송할 정도의 명작들이 놓여 있다. 오후 햇살을 받으면 피카소의 디자인 스케치를 반영해 창틀에 설치한 푸른 유리 작품이 반짝이면서 그 사이로 보이는 운하의 경치도 일품이다. 운하 쪽을 향하는 야외 공간에는 마리오 마리니의 ‘도시 천사가 벌거벗은 채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 경쾌한 모습은 발걸음을 돌리기 쉬워지게 만든다. 이 기적 같은 수상 도시를 다시금 찾으리라 마음먹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하다. **스타일** 글 고성연(베니스 현지 취재)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불가리 로만 소르베 링 상징적인 더블 로고 장식의 불가리 불가리 링에 걸려있는 젬스톤을 세팅한 링으로, 영롱한 빛을 발하는 블루 사파이어와 차보라이트로 특별함을 더했다. 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에스텔 플래티넘 밴드의 양쪽을 동그란 비즈 장식으로 상세하게 장식한 솔리테어 링. 반클리프 아펠을 탄생시킨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인 에스텔 아펠에게 헌사하는 의미의 반지다. 0.3캐럿 기준 6백10만원대. 타사키 벨런스 슬로 링 둥근 진주가 직선 기둥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나란히 놓인 모던하고 깨끗한 디자인이 특징인 타사키의 시그너처 링으로, 6mm의 아코야 진주와 최상급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베클리 솔리테어 링 베클리 컬렉션의 상징하는 화이트 골드 비즈로 밴드를 구성해 입체적이면서 사랑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한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9백70만원대. 타사키 벨런스 시그너처 링 18K 옐로 골드 직선 비에 최상급 아코야 진주를 일렬로 세팅해 강렬하고 유니크한 오라를 발산하는 링. 3백20만원대. 티파니 티파니 T 투 링 기준의 베스트셀러인 T 컬렉션의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링. T 모양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한 줄 세팅한 디자인이 모던하면서 감각적이다. 4백30만원대. 티파니 T 스퀘어 링 티파니의 알파벳 T가 지난 수직적이면서도 강렬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로즈 골드 링. 1백90만원대.

Forever one

기록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에는 다 이유가 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단독 혹은 다른 반지와 레이어링해도,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럭셔리 주얼리 하우스의 시그너처 링.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옐로 골드 스텔 사이즈 링 & 화이트 골드 스텔 사이즈 링 엑스(X) 자 모티브의 칼링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모던하면서 여성스러운 링. 태알리 링으로 적합하며 여러 개를 함께 레이어링해도 멋스럽다. 각 2백만원대. 부쉐론 리트르 클래식 다이아몬드 스텔 링 부쉐론만의 고유 모티브를 새긴 옐로, 화이트, 핑크 골드, 브라운 PVD로 제작한 4개의 밴드를 모아 하나의 링으로 제작해 우아하면서도 유니크함이 돋보인다. 1천만원대. 불가리 세르펜티 링 불가리의 대표 아이콘이자, 풍요, 지혜,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서 영감을 받은 링. 뱀의 비늘 모양을 입체적이고 아름답게 재해석했으며 핑크 골드에 머더오브피플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1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옐로 골드 라지 사이즈 링 볼드한 두께와 사이즈의 칼링 모티브 포인트 링 3백만원대. 불가리 비제로원 링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 핑크 골드와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믹스가 돋보이는 비제로원 링 2백만원대. 부쉐론 세렝 보렝 핑크 골드 토이 모이 링 뱀 모티브를 엔트릭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우아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링. 총 1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빛을 자랑한다. 1천만원대. 까르띠에 자스트 앵글루 링 단순하고 평범한 듯 모티브를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주얼리로 재탄생시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화이트 골드 링 2백90만원대. 까르띠에 러브 링 러브라는 로맨틱한 이름만큼이나 한국에서 커플 링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브랜드를 대표하는 링. 전용 스크루가 있어야 착용할 수 있는 러브 브레이슬릿을 반지로 재해석했고, 스크루 모티브 사이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품격을 더했다. 4백20만원대. 에디터 권유진

불가리 02-2056-0171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타사키 02-3461-5558 티파니 02-547-9422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부쉐론 070-7500-7282 까르띠에 1566-7277



LÄTT BY T

New evolution

남성 시계 분야에서 '에디션'의 가치는 전통과 혁신, 진화를 모두 담고 있다는 데 있다. 클래식한 모의 변주부터 완전히 새롭게 고안한 최 의 신제품까지 지금 주 해 할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본래 트래디션 크로노그래프 인디펜던트 7077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는 본래의 크로노그래프 위치 컬렉션 중 가장 상징적인 모델.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했을 때도 메인 기어 트래디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두 개의 독립적인 트래디션 고안했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컬렉션이다. 따로 외관상이지 않아도 크로노그래프가 필요한 에-자가 크로노그래프를 라켓하는 순간 만들어지도록 고안한 것도 트래디션의 노하우다. 9천원. 문의 02-3438-6218 **롱달링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합리적인 가격의 크로노그래프 위치. 셀프 와인딩 칼리버 MB 25.07을 탑재한 모델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장착했다. 신원한 가죽상의 핸드, 동봉된 특유의 스타 기호세 패턴, 블랙 앤드 화이트의 강렬한 디자인 배치까지 데일리 워치로 매력적인 제품이다. 5백원. 문의 1670-4810 **파 나티 루이노르 미라나 1950 3 데이즈 오토매틱 아이아이오**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본래의 트래디션 컬렉션. 밤이 되면 화려하게 빛나는 아랑 인덱스, 박력이 넘치는 볼륨 있는 크라운 기드, 쿠션 형태의 케이스까지 매력적인 요소가 가득 담겨 있다. 인하우스에서 제작한 P.8010 칼리버를 장착해 시간당 2만8천회 회전하고 3일간의 파워 리저브, 인가블록 충격 방지 장치까지 갖추었다. 9백원. 문의 02-3467-8455 **에르메스 케이프로드 TGM 오토매틱** 1991년 앙리 도라나가 디자인하고 전작인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케이프로드 위치에 신원한 블루 컬러 다이얼을 더해 모던함을 강조했다. 동그란 커브와 독특한 러그 모양이 다른 워치와는 확연히 다르다. 6시 방향의 심플한 날짜 표시창과 견고한 매트 인디고 블루 엘리먼트 스토퍼가 품격을 느끼게 한다.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7백원. 문의 02-542-6622 **카르띠에 드라이버드 카르띠에 세컨드 타임존 데이아나이트** 언제나 모던함과 클래식함을 동시에 지닌 케이스 형태를 선보이는 카르띠에. 세련된 출시한 드라이버드 카르띠에에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이 뛰어난 클래식한 케이스 세이프를 고안했다. 워치와 모던함을 동시에 갖춘 격조 있는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 또한 높다. 카르띠에 매뉴팩처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904-FU MC 칼리버를 장착했다. 핑크 골드 케이스가 손목 위에서 더욱 아름답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2천7백원. 문의 1566-7277 **제니스 알리드 6150** 본래의 크로노그래프 컬렉션 고스란히 담은 제니스 매뉴팩처 탄생 1백50주년 기념 모델. 워치하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마-아 중을 형성하고 있는 시그니처 워치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해 파워 리저브 1백 시간의 놀라운 성능을 선보인다. 올트랜스 제품 중 최초로 다이얼 사이즈 42mm 모델이 출시되었다는 것도 이 제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9백원. 문의 02-2118-6225 **블랑팡 날파제 파페추얼 컬렉션** 2100초까지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파페추얼 컬렉션 워치. 정교하게 시간을 기록하는 셀프 와인딩 칼리버 5939A는 유년과 문페이즈, 날짜, 월, 요일까지 완벽하게 표시한다. 4개의 안티 마그네틱 헤더 덕분에 별도의 도구 없이 날짜와 문페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 고급 시계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선명한 화이트 컬러의 다이얼은 그림 피 에-구벌 기법으로 완성한 말 그레로 수직선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요소다. 9천원. 문의 02-6905-3367 **에디터 베이진**

RADO.COM



RADO
 SWITZERLAND

**RADO CENTRIX
 AUTOMATIC OPEN HEART
 HIGH-TECH CERAMIC ELEMENTS
 TANG WEI**

THE SWATCHGROUP KOREA

HOOR PASSION 롯데월드몰 02 3213 4168 AK PLAZA 수원부티크 031 240 118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 2164 5195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센텀시티점 경기점 의정부점 충청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킨텍스점 울산점 부산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스와치그룹CS센터 02 3149 9555



**CLASSIC
TRENCH COAT +
STILETTO HEEL**

벳벳한 개버딘 소재, 어깨 위
견장 디테일과 깔끔하게 떨어지는
더플 버튼은 트렌치코트의
대명사라 불리는 바버리에서도
가장 기본인 라인. 클래식한
헤리티지 트렌치코트 3백10만원
바버리, 반박이는 블랙 메이틴트
소재와 골드 색의 조화가 멋스러운
스틸러 힐 96만원 **툼 포드**.



**MAXI-LONG
TRENCH COAT +
LACE UP BOOTS**

낙낙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긴
길이감까지, 네 가지 트렌치코트 중
가장 트렌디한 디자인을 고르려면
단연 이것 탈취되는 퍼 칼라로
초가을부터 겨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시크하면서도
캐주얼한 맛을 지닌 트렌치코트
2백70만원 **샤카이**, 메시 소재를
사용해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는
레이스업 부츠 2백만원대 **루이 비통**.



get it Trench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페미닌한 요소와 아티스틱한
터치가 가미된 트렌디한 스타일까지, F/W 시즌의 상징인
트렌치코트의 다양한 변주와 함께 그에 꼭 어울리는 슈즈를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샤카이, 루이 비통, 톰 포드, 바버리



**ARTISTIC
PRINTED TRENCH
COAT + ANKLE
STRAP HEEL**

트렌치코트 고유의 클래식한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아티스틱
터치를 가미해 등장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무드를 녹여냈다.
기모노 1997 라인 트렌치코트
8백90만원 **발렌티노**, 스타일에 더욱
힘을 실어줄 강렬한 골드 컬러의
앵클 스트랩 힐 98만원 **구찌**.



**FEMININE
TRENCH COAT +
T STRAP SANDAL**

트렌치코트 밑단에 살짝 주름이
잡혀 한층 페미닌한 감성을 드러낼
수 있다. 칼라를 자연스럽게 펼쳐면
안감의 하-몸 패턴이 돋보이는
여성스러운 실루엣의 트렌치코트
1백70만원대 **에스까다**, 반박이는
스외로브스카가 장식된 마들릴
T 스트랩 슈즈 1백만원대 **디올**.
에디터 이지연

바버리 02-3485-6800
툼 포드 02-6905-3640
에스까다 02-3442-5760
디올 02-3480-0104
샤카이 02-541-7510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렌티노 02-543-5125
구찌 1577-1921



ACE
편안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기록될
단 하나의 매트리스
THE HERITAGE OF SLEEP SCIENCE
ACE HERITZ





An exquisite finish for endless radiance.

더 없이 아름다운 새틴보다 부드럽고, 이슬이 스민 듯 촉촉한 광채를 선사하는 클레드뵐 보떼의 베이스 메이크업. '뿡 홀루이드 트랑스빠랑뜨'가 촉촉하고 투명하게 피부를 정리해주고, '뿡 크림므 에끌라'가 티없이 빛나는 무결점의 광채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뿡 크림므 에끌라 NEW/뿡 홀루이드 트랑스빠랑뜨 /뿡소

elegantly Lustrous

국내 여배우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화보 촬영은 물론 리얼 웨어에서 '진짜로' 애용하는 파운데이션은? 빛의 레이어링으로 무결점 광채 피부를 연출해줄 그 주인공이 바로 이 페이지에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의 강자, 클레드뵐 보떼

그간 화보 촬영장에서 만난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중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손꼽은 베스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바로 클레드뵐 보떼의 파운데이션이다. 이 중 몇몇 아티스트들은 클레드뵐 보떼의 파운데이션 여러 개를 미리 구매해놓고 사용할 정도로 마니아층을 형성했는데, 이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장점은 피부 톤과 컬러, 피뿔결, 결점 커버 등 모든 면에서 고급스러우면서 피부 표현이 균일하고 매끄러운 광채를 선사한다는 점이다. 일명 '자발가며 느리'의 피부 표현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컬러와 광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이라는 것. 더불어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로서 탄탄한 기술력의 최고급 스킨케어 라인도 보유하고 있는 클레드뵐 보떼의 메이크업 제품인 만큼 텍스처와 발림성이 놀라우리만큼 완벽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다.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높여줄 베이스부터 커버력이 자연스러우면서 완벽한 컨실러,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의 파운데이션과 파우더 팩트 등 다양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클레드뵐 보떼에서 이런 명성과 독보적인 빛의 레이어링 기술을 고스란히 담은 파운데이션 제품, '클레드뵐 보떼 뿡 크림므 에끌라 SPF 25 PA++'를 출시한다. 정교한 파나시에 균일한 커버력을 자랑하는 이 가볍고 크리미한 파운데이션은 전례 없는 마이크로 패킷 기술을 적용해 피부의 건조함과 색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광채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 여기에 함유된 살리실릭산 오일의 빛 반사 기술이 촉촉함으로 가득 찬 듯 피부에 한층 더 매끄러운 광채와 윤기를 부여한다. 또 클레드뵐 보떼 스킨케어 라인의 핵심 성분인 알루미네이트 콤플렉스가 피부 세포가 받는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피부가 가칠어지는 것을 예방해 메이크업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스킨케어를 하듯 편안하면서 촉촉하고 투명한 광채 피부를 유지해준다.

타고난 피부가 좋은 듯 건강한 광채 피부 연출

평소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선호하는 에디터에게 클레드뵐 보떼 뿡 크림므 에끌라 SPF 25 PA++는 가히 인생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촉촉함이 느껴지는 쫀득하고 크리미한 텍스처가 인상적이며, 얇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매끄럽고 은은한 윤기가 흘러 마치 타고난 피부가 좋은 것처럼 건강한 피부 톤과 고른 피뿔결을 연출해주기 때문. 트러블이 없는 피부 타입이지만 홍조가 쉽게 생기고 피부가 울긋불긋해 베이스 제품을 고를 때 신중한 편인데, 세련된 컬러가 본연의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붉은 기를 고르게 잡아주어 인색이 한결 화사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도 건조하거나 제형이 메마르지 않아 파운데이션이 뭉치거나 들뜨지 않고 모공이나 주름 사이에 끼는 현상도 전혀 없으며, 스킨케어한 듯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워낙 질감이 촉촉하고 크리미하기 때문에 손으로 발라도 피부가 예쁘게 표현되지만, 보다 밀착력을 높이고 광채 효과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클레드뵐 보떼의 특별한 파운데이션 브러시 '뿡소'를 사용해 버를 것을 추천한다. 피부에 계속 터치하고 싶을 만큼 아주 보드랍고 탄력 있는 섬세한 모로 이루어진 이 브러시는 붓 자국이 남지 않고 파운데이션이 고르고 얇게 발리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좀 더 커버가 필요한 접티 부분에는 톡톡 두드려 파운데이션을 레이어드해주는 커버력은 높아지며, 신기하게도 광채는 배가되고 메이크업이 두꺼워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다. 더불어 한국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57가지의 세련된 컬러들로 선보이니, 인생 파운데이션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클레드뵐 보떼 매장에 방문해볼 것. 뿡 크림므 에끌라 SPF 25 PA++ 21ml 16만 원대, 뿡소 파운데이션 브러시 6만 8천 원대.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SPECIAL EVENT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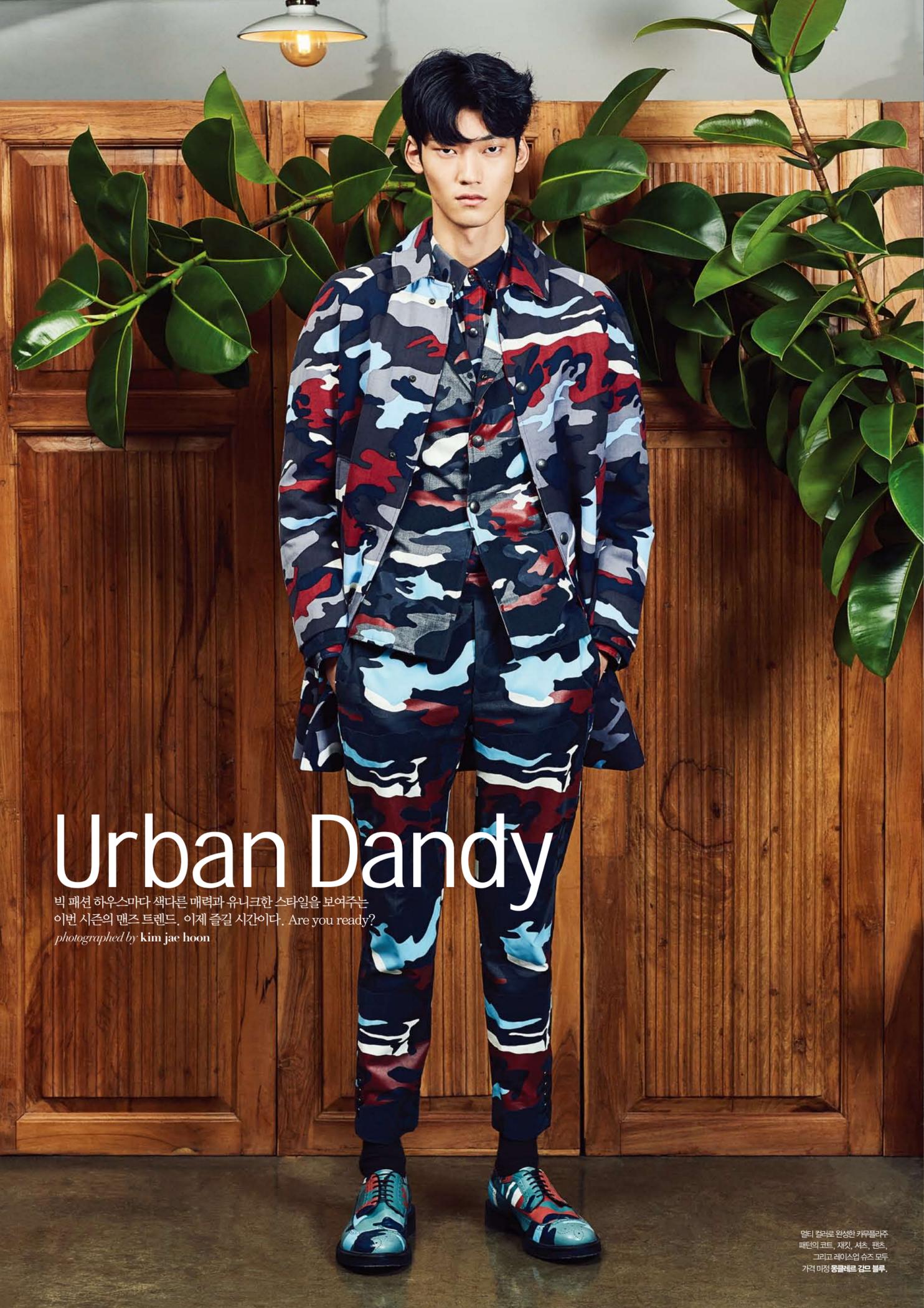
<스타일 조선일보>와 클레드뵐 보떼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자칭하고 클레드뵐 보떼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 판교점·부산점·대구점, 신세계 센텀점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분들에게 아민다 사이프리의 무결점 광채를 체험하실 수 있는 베이스 샘플을 증정합니다.

◆ 증정품: 뿡소 홀루이드 트랑스빠랑뜨 0.3ml, 뿡 크림므 에끌라 0.3ml, 크림므 힐 데아미앙트 1.5ml
◆ 기간: 2016년 10월 20일(목)~23일(일) ◆ 문의: 080-564-7700

◆ 증정 매장: 클레드뵐 보떼 5개 매장(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 판교점·대구점·부산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 증정 상품은 각 매장에서 1일 50개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본 쿠폰은 1인 1회 사용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Urban Dandy

빅 패션 하우스마다 색다른 매력과 유니크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이번 시즌의 맨즈 트렌드. 이제 즐길 시간이다. Are you ready?
photographed by kim jae hoon

멀티 컬러로 완성한 카무플라주 패턴의 코트 재킷, 셔츠, 팬츠, 그리고 레이스업 슈즈 모두 가락 미칭 몽클레르 김으 블루.



(왼쪽) 브라운 송치 재킷 가락 미칭 할프코렌, 그레이 팬츠, 블랙 슈즈 모두 가락 미칭 알렉산더 맥퀸. 티몰릭 니트 울 가락 미칭 보타가 베네타. (오른쪽) 파우탈이 노가지는 브라운 울의 체크 재킷, 그레이 셔츠, 소프트한 아웃핏 컬러 팬츠, 타이 모두 가락 미칭 할프코렌. 화려한 블랙 로퍼 가락 미칭 에르메네집도 제나 쿠티르 캅렉션.



(왼쪽) 버건디 컬러의 체크 재킷, 심플한 디자인의 니트, 짙은 그레이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가운데) 부드러운 소재감이 돋보이는 그레이 베스트, 체크 패턴을 가미한 니트 등,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엘포리오 아르마니**.
 (오른쪽) 윈도패인 체크 재킷, 클래식한 무드기 느껴지는 베스트, 그레이 컬러 롬, 버건디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굵은 실로 편 니트 패치와 앙헬을 가미한 길라 장식이 매력적인 롱 체크 코트 가격 미정, 네비 팬츠 가격 미정, 가죽 테슬과 버클 장식을 다한 슈즈 1백20만원대 모두 **프라다**, 페이즐리 패턴의 셔츠 88만원 **에트로**.



모던한 느낌을 주는 네이비 패턴 코트,
 네이비 컬러 롱,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쿠이 비롱, 모노그램 패턴의 블랙
 슬림핏 80만원 **쿠이 비롱**.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네이비
 컬러 타블레트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다**.



(왼쪽) 세련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롱 코트와 팬츠, 이카인 니트 베스트, 깔끔한 화이트 셔츠, 포말한 블랙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블랙 보타가 가격 미정 **디올**.
 가운데 심플한 베이지 트렌치코트, 핑크 타블레트, 부드러운 감촉의 그레이 니트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성세탁에 완성할 범 자수가 유니타한 데님 팬츠 1백50만원, 견고한 느낌의 블랙 컬러 워커 1백30만원 모두 **구찌**.
 오른쪽 블랙 레더 재킷 가격 미정 **자방시 by 라카르도 티시**, 화이트와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 니트 베스트 87만원, 화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셔츠 62만원, 그린 팬츠 82만원, 무지개가 들어간 로퍼 88만원 모두 **구찌**.



(왼쪽) 자카르 패턴의 케이프 코트, 화이트 셔츠, 핀 스트라이프 더블 플리츠 팬츠, 블랙 칼라 니트 타이, 견고한 레더 로퍼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시빌도 제나 쿠튀르 컬렉션.
 (오른쪽) 비즈 장식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오버사이즈 니트 등 가격 미정, 낙낙한 실루엣의 팬츠 1백77만원 모두 **에르메시빌도 제나 쿠튀르 컬렉션.** 레이스업 슈즈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얇은 테 안경 19만5천원 **트리티.**

(왼쪽) 선명한 블루와 그레이 컬러를 배색한 니트 카디건 1백62만원, 신뜻한 옐로 컬러가 돋보이는 롱 67만원, 그레이 컬러 팬츠 99만원 모두 **펜디.**
 (오른쪽) 블루, 옐로, 블랙 컬러의 조합이 유니크한 체크 패턴 코트 3백1만원, 두통하게 된 터틀넥 79만원, 팬츠 62만원 모두 **펜디.**

헤어: 에이.브이. 김환
 모델: 이봉찬, 김준성, 장용수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몽클레르 김오 블루 02-514-0900
 토즈 02-3438-6008
 디올 02-513-0300
 루이 비통 02-3432-1854
 보타가 베네타 02-515-5840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옐포리오 아르마니 02-540-1115
 에르메시빌도 제나 쿠튀르 컬렉션 02-518-0285
 알렉산더 맥퀸 02-6905-3633
 에르메시 02-544-7722
 구찌 1577-1921
 지방시 by 리카르도 티시 02-517-7560
 펜디 02-2056-9022
 프라다 02-3442-1830
 랄프로렌 02-545-8200
 트리티 031-714-0907





LA DONNA CHE LEGGE

왜 샤넬은 샤넬일까? 절대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전설적인 존재감을 지닌 샤넬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전시회는 가장 가치 있는 공간과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베니스에 있는 카 페사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문화 샤넬전, <책 읽는 여자(LA DONNA CHE LEGGE)> 전시회를 방문한다면.

샤넬, 서재, 장-루이 프로망 그리고 베니스

2007년 첫 문화 샤넬전이 열린 이래, 이 전시 프로젝트는 수석 큐레이터인 장-루이 프로망(Jean-Louis Froment)의 기획에 맞춰 특별전 형태로 수차례 열렸다. 보르도 현대미술관(CAPC)을 설립하고, 1973년부터 1996년까지 관장을 지낸 장-루이 프로망은 지속적으로 열린 문화 샤넬전을 통해 각기 다른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가브리엘 샤넬과 샤넬 하우스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세기부터 오늘날까지를 세심하게 통찰하면서 그녀가 살았던 당대 문화를 바탕으로 전시 콘텐츠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마드모아젤 샤넬의 일생에서 당대 최고의 창의적인 예술가들과 맺은 관계들은 늘,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녀가 친구들과 맺은 우정과 그들과 주고받은 대화는 샤넬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창작물들의 소중한 자양분이었다. 2007년 모스크바(푸시킨미술관), 2011년 상하이(현대미술관)와 베이징(중국 국립미술관), 2013년 광주(오페라하우스)와 파리(말레 드 도쿄), 2014년 서울(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이어 이번 문화 샤넬전은 베니스에서 공개됐다. 베니스는 가브리엘 샤넬의 영감의 원천 중 하나. 이번 전시는 그녀가 사랑했던 문화와 사람들을 근간으로 비유와 시각적 장치들 이용해 그녀의 책과 글쓰기, 그중에서도 특히 시 작품에 대한 애착을 강조하고, 그것들이 그녀의 작품 구상에 미친 영향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준다. 덕분에 헌사, 기록, 사진, 그림, 테셀과 같은 모티브들이 패션 작품들로 구성된 샤넬의 옷장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 옷장이 곧 그녀의 책장과 마찬가지로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브리엘 샤넬의 미학적 언어는 그 취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고전주의와 바로크 양식을 좋아하고, 러시아와 베니스의 금빛에 푹 빠져 있던 그녀의 취향을, 주얼리, 향수와 더불어 그녀의 파리 아파트에서 가져온 예술 작품들도 최초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3백50여 점에 달하는 창작품을 선보이며 독서를 통해 완성되었던 가브리엘 샤넬의 사적인 포트레이트를 완성했다. 누군가의 말대로 자신의 인생을 전설로 만드는 법을 그녀는 알았던 것일까?

책과 작가들, 가브리엘 샤넬의 인생 길잡이가 되다

일곱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문화 샤넬전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녀의 세계를 조명했다고



1 파블로 피카소, 젊은 여성의 초상(1958년 7월 4일). ©Succession Picasso 2016/RMN-Grand Palais (Musée Picasso de Paris)/photo Martine Beck-Coppola. 2 앙드레 브르통, 르네 릴성, 루이 아랑, 폴 엘뤼아르, 다다 3호 출간(1919년). ©위 데 아카이브스/PVD. 3 2016 베니스 문화 샤넬전 포스터. 4 칼 라가렛트의 샤넬, 2013~2014 파리-델라스 공방 컬렉션(금빛 별들로 자수를 놓은 검은 벨벳 드레스와 검은 실크 힐 드레스). 2011~2012 샤넬 크루즈 컬렉션(해성 자수가 들어간 내이비 실 크레이프 드레스, 검은 실크 힐 샌들). 2002~2003 세틀라이트 러브 공방 컬렉션(1932년 가브리엘 샤넬이 만든 사실의 해상 목걸이 그림의 자수를 놓은 검은색 캐시미어 풀오버, 샤넬 피르미유인 컬렉션). © 샤넬/사진: Patricia Canino. 5 샤넬 백을 든 사라 블롬비스트(Sara Blomqvist, 2010.) ©리처드 버브리지(Richard Burbridge). 6 스파에서 서재로 바뀐다고 있는 가브리엘 샤넬의 사진(1962년 7월, 로스 앤젤레스). ©Douglas Kirkland. 7 사자 조각상, 20세기 초, 금동 소재, 가브리엘 샤넬의 아파트, 파리. ©샤넬 컬렉션/사진: Thierry Depagne.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작가부터 현대 시인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가브리엘 샤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그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그녀의 서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파리 강북가 31번지에 있는 가브리엘 샤넬의 아파트에는 그녀에게 가르침을 준 작가들의 책들이 서재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성실한 독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을 더욱 견고하게 했으며 자신만의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다는 마드모아젤 샤넬의 서재는 그녀가 얼마나 열렬한 독서가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브리엘 샤넬의 섬세한 비유와 시각적인 작품들은 이번 전시회의 시그니처인 이 서재에서 비롯되었다. 이 서재는 책과 샤넬 고유의 스타일이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준다. 고아원에서 외롭게 보낸 유년 시절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책과 그 책의 저자들이 가브리엘 샤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며 그녀가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알려주었다. 고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나들며 이루어진 대화는 특히 호메로스과 플라톤, 베르길리우스, 소포클레스, 루크레티우스, 단테, 몽테뉴, 셰르반테스, 세비네 부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작품에서 발견한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피에르 르베르디와 막스 자코브, 장 콕토와 같이 그녀가 존경하고 진본이 있었던 작가들과도 공감을 나누었다. 그녀는 이와 같이 다양한 작품을 접한 덕분에 진보적이고 현대적 감각이 갖는 자신만의 패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가브리엘 샤넬의 끊임없이 꿈꾸는 삶

이번 전시회의 총 4개의 공간 - '우리가 이끄는 삶', '보이지 않는 메시지', '생각을 돕는 감상', '시간의 측면'에 전시되는 3백50여 점 이상의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은 가브리엘 샤넬의 인간적인 매력을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녀의 독서가 어떻게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는



지 이해하게 된다. 책, 수많은 헌사들, 기록, 사진, 그림과 도안, 그리고 가브리엘 샤넬의 아파트에 남아 있던 미술품, 보석, 향수는 지금까지도 칼 라가렛트의 샤넬 의상 디자인에 중대한 영감을 주고 있다. 서재에서 영감을 받았듯이, 책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은 단순함과 순수함에 대한 센스, 고전주의에 대한 취향, 바로크에 대한 열망 등 가브리엘 샤넬의 미적 감성과 감각을 더욱 충만하게 한 동반자였다. 생전에 그녀는 소설가이

자 그녀의 친구였던 폴 모랑(Paul Morand)에게 "책은 나의 가장 훌륭한 벗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가브리엘 샤넬에게 책을 읽는 시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었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그녀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구체화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책 읽는 여자'라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가브리엘 샤넬이 직접 쓴 노트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작지만, 우리가 꿈꾸는 삶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꿈꾸는 삶은 죽음을 초월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저서를 통해 본인의 의도를 표현하듯, 가브리엘 샤넬은 패션을 통하여 그녀만의 언어를 보다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단순한 지적 허영심이 아닌 그녀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녹아있는 그녀의 독서 습관과 명상 시간은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서로 긴밀하게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한다. 한 편의 시에서 한 벌의 옷으로, 혹은 한 개의 주얼리로, 마드모아젤 샤넬의 일생 자체가 별처럼 빛나는 이유, 또 시간이 자날수록 그 가치가 깊어지는 이유, 결코 행운만이 아니었음이 이 전시회에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책 읽는 여자', 가브리엘 샤넬. 그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샤넬전은 2016년 9월 17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베니스 카 페사로 국립현대미술관(CA' PESARO INTER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에서 전시된다.



1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 샤넬전 전시장 내부 모습. 모두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수가 앞섰던 책들, 스케치, 그림, 장식품 등 그녀 인생 전반에 영감을 준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2 문화 샤넬전이 열리고 있는 베니스 카 페사로 현대미술관 전경. Santa Croce 2076, 30135 Venice. 3 이 전시를 기획하고 큐레이팅한 장-루이 프로망. 4 마드모아젤 샤넬의 아파트에 있는 작은 소장품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true Glamour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입은 몽블랑(Montblanc)의 여성 컬렉션, 보헴의 우아한 자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 단순히 반짝이는 보석을 넘어선,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와 기술적인 정교함을 지닌 '보헴 엑스투르비용 슬림'이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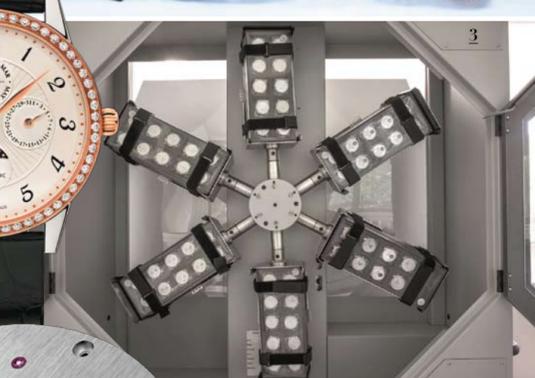
우아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위한 보헴 컬렉션

몽블랑은 2014년 여성을 위한 보헴 컬렉션(Bohème Collection)을 새롭게 론칭했다. '보헴'이라는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 현대판 보헤미안 여성들의 특징인 자신감과 우아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브랜드의 열정을 새로이 표현하는 의미 있는 여성 시계 컬렉션이다. 보헴은 여성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담은 디자인, 유니크한 다이얼 배치, 클래식한 기묘세 패턴과 매혹적인 플로럴 이라 비아사자 인텍스 등 한눈에 봐도 명품 워치메이킹의 필수 요소인 전통적인 기술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슬림하고 아름다운 여성성이 돋보이고 있다. 몽블랑의 보헴은 보기에만 아름다운 주얼 워치를 넘어, 기계적 워치에 대한 여성들의 니즈를 반영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더욱 아름답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진화해왔다. 바로 1백 년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페퍼추얼 캘린더 모델과, 지난 2015년에 선보인 '문 거든과 데이 앤 나잇' 등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 고기능 컴플리케이션 모델 등 여성을 위한 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며 선택의 폭을 넓혀온 것. 이처럼 최상의 품질, 우아한 디자인으로 대변되는 몽블랑 보헴 컬렉션이 몽블랑 여성용 시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또 한 번 펼친다. 지난 9월 7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파니스 센터에서 열린 보헴 컬렉션의 세 번째 론칭을 위한 자리에서 공개된 보헴의 독보적인 하이엔드 워치에 이질 노후우인 엑스투르비용 장착한 보헴이 그 주인공. 몽블랑의 CEO인 제롬 랑베르(Jérôme Lambert)는 "바로 2년 전 보헴 컬렉션을 론칭하자마자, 보헴은 특별하고 스타일리시한 시계를 찾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 컬렉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보헴을 통해 최고의 오프 로제리(Haute Horlogerie), 고급 시계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보헴 컬렉션의 세 번째 론칭을 축하하기 위해 폭풍 속을 뚫고 행사에 참석한 전세계 프레스들에게 첫인사를 건넸다. 현장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엑스투르비용 슬림 모델 외에도 몽블랑이 올해 창립 1백1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기념 모델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었다.

화려함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뉴 보헴 레디디

화려함(Glamorous)과 자신감(Self-confident), 그리고 스타일(Style)은 새로운 보헴 컬렉션을 가장 잘 표현해줄 키워드다. 몽블랑은 이에 맞춰 앞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대변하는 세 명의 보헴 레디디를 선정했다. 바로 보헴 스피릿에 부합하는 화려한 매력을 지니는 중국 배우 장즈린(Zhang Zilin)과 자신감 넘치며 세련되고 독립적인 여성 영화감독 수에 시아오(Xue Xiaolu), 그리고

고 시대의 스타일 아이콘으로 주목받은 싱가포르 출신의 여배우 자넷 오(Jeanette Aw)이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당당히 펼칠 수 있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오늘날 우리들이 원하는 여성상이기 때문. 이 날 세 명의 보헴 레디디는 무대에 올라 보헴의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감성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전하며, 새로운 보헴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선보인 보헴 엑스투르비용 슬림 컬렉션도 총 세 가지 모델로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이날의 주인공 '보헴 엑스투르비용 슬림'은 배젤 주위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18K 레드 골드 소재 케이스에, 6시 방향에 고고한 자태로 돌아오는 투르비용 무브먼트가 탑재된 모델이다. 다음은 다이얼 중심부를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수놓은 '보헴 엑스투르비용 슬림 주얼리 워치'와 브랜드의 창립 1백10주년을 기념해 생생함과 부활의 상징, 뱀 모티프를 다이얼 위에 장식한 '보헴 엑스투르비용 슬림 1백10주년 기념 피스타', 10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 이 모델은 이날 행사장에서 거의 모든 파니스 판매점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 앞선 세 가지 모델 모두 엑스투르비용 '슬림'이라 명명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구성과 기능의 투르비용은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지만, 마이크로 로토를 사용한 엑스투르비용 오토매틱 칼리버 MB M29.24 무브먼트는 두께가 4.5mm이며, 케이스에 탑재해도 전체 두께가 9.37mm밖에 안 되는 얇은 보디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워치메이킹을 이토록 여성적으로 표현한 시계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 이 외에도 기존에 선보인 보헴 페퍼추얼 캘린더의 골드&스틸 콤비 모델을 새롭게 소개했으며, 기존 30mm 사이즈의 보헴 데이티 오토매틱은 올해 34mm 사이즈로 더욱 커졌고, 이와 반대로 34mm 사이즈의 보헴 데이&나잇 모델은 지름 30mm 사이즈로, 작고 큰 크기의 변화가 있었다. 이번엔 새롭게 선보인 보헴 컬렉션의 공통점이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별도의 도구 없이도 간단히 버클을 눌러 시계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추가로 장착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집에서도 손쉽게 그날그날의 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졌다. 한편, 행사장 곳곳에는 워치메이킹의 무브먼트 조립 공정 과정부터 스케치하는 시연 데스크까지 다양한 체험 존을 마련해 엑스투르비용의 위대함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다. 문의 1670-4810 에디터 이지연(베이징 현지 취재)



1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파니스 센터에서 열린 보헴의 새로운 컬렉션 론칭 행사. 2 몽블랑의 CEO 제롬 랑베르와 함께 포즈를 취한 세 명의 보헴 레디디. (왼쪽부터) 자넷 오, 장즈린, 수에 시아오. 3 시계의 정확성과 성능, 방수 기능 등 최고 품질의 타임피스들을 위한 몽블랑만의 자체 테스트 프로그램, '몽블랑 컴 테스트 500'의 진행 과정. 4 이번 컬렉션의 메인 모델인 '보헴 엑스투르비용 슬림'.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는 시어미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를 통해 엿볼 수 있다. 5 보헴 페퍼추얼 캘린더의 골드&스틸 콤비 버전. 6 엑스투르비용 슬림에 탑재된 오토매틱 칼리버 MB M29.24 무브먼트.

the mark of true Design

늘 새롭고 액티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스위스 워치 메이커 브랜드 미도가 지난 10월, 2016년 바젤에서 선보인 신제품과 함께 국내 아티스트 3인의 협업으로 완성한 아트피스를 선보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건축물에서 받은 영감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세계적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다

1918년, 조지 사렌이 스페인으로 나는 측정한다라는 의미를 지닌 'Yo mido'에서 브랜드명을 착안해 완성한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 오로지 스위스 메이커 오토매틱 워치만을 선보이며 매년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위치 그룹 산하 브랜드로 연간 4만 개가 넘는 COSC 인증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생산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한다. 미도의 시계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미도만의 건축학적 DNA를 담은 타임리스한 디자인 덕분이다. '진정한 디자인의 상징(The Mark of True Design)'이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유명 건축물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얻는데, 이는 세계적인 건축물들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가치가 1백 년 가까이 되는 긴 역사를 지닌 미도 위치의 타임리스한 디자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미도에서 선보이는 모든 시계는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는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은 것이 특징이다. 더 나아가 미도는 세계건축가협회(UIA)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해 역사적인 건축물과 미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기에 오래도록 착용해야 하는 클래식한 워치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건축미를 담은 미도 워치가 한자리에, 비바 서울 로드쇼

미도 워치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rium 광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그 위상을 널리 알렸다. 2016년 바젤에서 선보인 미도의 신제품과 함께,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 3인(이대철, 박천욱, 양지일 작가)이 6개의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아트피스를 선보이는 행사인 '#비바 서울 로드쇼(#BIBA, Be Inspired By Architecture)'를 바로 이곳에서 선보인 것. 미도의 아이덴티티인 인상적인 오렌지 컬러로 장식한 행사장은 멋진 미도의 신제품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는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하에 로마를 대표하는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은 올 다이얼(All Dial), 밀라노에 위치한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에서 영감을 받은 바론첼리(Baroncelli) 컬렉션 그리고 파리 에펠탑의 아름다운 곡선과 사진의 매력을 모티브로 한 커맨더(Commander), 미도의 대표 컬렉션이자 시드니의 허버 브리지에서 영감을 받은 멀티포트(Multifort), 지중해에 위치한 유로파 포인트 등대에서 영감을 받은 오션 스타(Ocean Star), 영국 런던에 위치한 로열 앨버트 홀에서 영감을 받은 벨루나(Belluna) 등 총 6가지 컬렉션의 주력 상품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 미도의 브랜드 철학인 미학성과 진정성, 기능성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출시된 워치들을 직접 착용해볼 수 있었으며, 아이코닉하고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함께 배치된 이미지 배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1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문적인 시계 브랜드인 만큼 이번 컬래보레이션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아티스트들의 결과물도 미도의 브랜드 스토리를 충충히 채워주었고, 배우 장혁, 이규환, 이요원, 한채아, 서지혜 등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권유진



1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 3인(이대철, 박천욱, 양지일 작가)이 6개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아트피스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잠실 롯데월드몰 1층 광장에 전시되었다. 2 이번 이벤트를 장식해 자리를 빛낸 배우 이요원. 3 미도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도록 오렌지 컬러로 장식한 행사장 모습. 4 로마를 대표하는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은 올 다이얼 컬렉션. 5 '비바'라는 남성을 영감에 하는 비트지한 스트랩의 더욱 강렬한 세이프의 다이얼로 탄생한 멀티포트 크로노그래프 이앤서 워치. 6 올해 컬렉션 론칭 40주년을 맞아 선보인 바론첼리 컬렉션.

editor's Pick

윤광 메이크업에 딥 컬러 포인트 메이크업, 가을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뷰티 아이템을 <스타일 조선큐> 에디터가 엄선했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아베다 툴라사라 브라이트 컨센트레이티드** 세럼이 출시한 아베다의 스킨케어 라인으로 유행과 정화기 주목적이다. 제형이 가볍고 부드러운 순식간에 흡수된다. 사이즈가 작아서 여행 갈 때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비크기에 좋다. 건조 뿌리 추출물이 화이트닝 효과까지 선사하는 산뜻한 제형의 제품. 30ml 8만원.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배미진*

샤넬 루즈 칼레신 N1 레 까트르 옴브르 288 강도르 에 엑스캐리안스 질은 초콜릿 컬러 두 가지와 베이지 컬러, 레드 빛의 벽돌색으로, 특히 흔하지 않은 차분하면서 고혹적인 벽돌색 색도가 단연 매력적이다. 에디터의 팀이 있던 벽돌 색 색도를 입술에 톡톡 두드리면 후 랩핑을 발라주면 붉게 물든 매혹적인 레드 lips 완성된다. 2g 7만2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아메이샤스 브로우 디아이너스 크림 부드러운 크림 텍스처의 눈썹 전용 브로 크림. 그린 브로 제형은 맨솔 또는 색도 타입에 사용했던 터라 이런 크림 타입이 다소 생소해 오히려 없이 잘 바림이 걱정했는데 브로 브러시와 함께 잘 바르면 겹칠 때 따라 타지 않거나 아주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발려 만족스럽다. 2.9g 3만2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권유진*

모로칸 오일 스킨 로션 믿고 쓰는 제품이 된 모로칸 오일 브랜드 중 세번째로 사용해보는 제품. 마라카이와 일교 건조한 환경에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것은 물론 드라이 후에도 헤어 탄력을 유지해준다. 부스스한 머리 끝 길러줌으로 고반전 이들에게 추천한다. 300ml 3만7천원. 문의 1666-5125. *by 에디터 배미진*

블라귀 로즈 클레아 지금껏 말아본 로즈 향 베이스의 향수 중 로즈를 가장 우아하게 표현한 향. 한 번의 팜핑으로도 향의 중심이 되는 '로즈와 마스카의 아름다움'은 조화가 가득 펼쳐진다. 결코 가볍지 않은 향으로 꽤 오랫동안 지속되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 이 계절과도 잘 어울린다. 50ml 14만5천원. 문의 080-990-8989. *by 에디터 이지연*

루나 프로 컨실 퀴아티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한 필수 아이템. 피부 각 부위에 가장 적합한 질감과 재질로 구성된 피부 결질 케어는 물론, 눈 보정과 컨투어링까지 해결 가능하다. 날작한 모와 날렵한 모로 구성된 듀얼 브러시가 함께 들어 있어 메이크업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1.2g x 6 3만 원. 문의 080-024-1357. *by 아시스턴트 김수빈*

클라린스 멀티 액티브 트리트먼트 에센스 세안 후, 화장술에 들뜬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토너형 에센스다. 상쾌하고 가벼운 워터 텍스처가 피부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팅 역할까지 해준다.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타일 추출물과 아세로라 사탕 추출물 함유돼, 꾸준히 쓰면 안색이 맑아진다. 200ml 5만3천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이지연*

프래쉬 슈가 립 폴리쉬 달콤한 촉촉향 향이 크기를 스치는 이 제품은 프래쉬 슈가 마스카팩의 명성을 고스란히 담은 립 전용 스크럽제. 상처를 치유하고 보습 기능이 뛰어난 슈가 성분이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고 부드럽게 입술의 각질을 제거해 건강하고 매끄러운 입술로 바꿔준다. 수분기가 있는 입술에 적당한 열을 덜어내어 마사지해주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스크럽되면서 개인 입술에 한결 매끄러워졌다. 1.7g 3만4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권유진*

시슬리 스킨케어 부르크 주빅 크림 촉촉한 텍스처에서 느껴지는 즉각적인 탄력감이 특징으로 제형과 효과를 모두 잡은 목 전용 크림이다. 귀 뒤에서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라인, 목 앞쪽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라인의 탄력을 잡고 싶은 30대 이상 여성에게 추천한다. 간단한 마사지와 함께 2주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2~3번 사용해도 충분하다. 50ml 18만 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배미진*

통포드 뷰티 립 컨투어 듀오 립스틱 형태의 립 컬러와 펜슬처럼 생긴 립 세이퍼가 함께 구성된 2 in 1 립 듀오. 미세한 핏을 함유한 매끈한 타입의 마쉬업 립 세이퍼로 입술 라인을 따라 그려내선형도 빌라준 뒤, 촉촉하고 부드러운 립 컬러를 입술 안쪽에 톡톡 두드리며 퍼 비르면 입술을 매혹적이고 볼륨감 있게 완성할 수 있다. 2.2g 6만 원. 문의 02-3440-2750. *by 에디터 권유진*

클로란 망고 마스크 잠에서도 뛰어난 헤어 케어 효과를 원한다면 이 제품을 사용해보길. 망고 바디의 풍부한 영양 성분이 화장기에 건조하고 갈라지는 모발을 튼튼하고 촉촉하게 바꿔준다. 무수분, 무피리엔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간다. 향긋하게 퍼지는 망고의 상큼한 향은 덤. 150ml 2만8천원. 문의 1899-4802. *by 아시스턴트 김수빈*

블리 1803 레 부지 피부에 향초 독특하게 실과 콩, 코프라 등 자연 그대로의 원료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그들을 없이 연소가 일정하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공에 폼처럼 정교한 대리석 케이스 덕분에 소장 가치도 높다. 300g 21만5천원. 문의 02-511-3439. *by 에디터 배미진*

엘랑 키스키스 립스틱 망고 바디 크림 텍스처가 벨벳처럼 매끈한 레드 립을 완성해준다. 핑스 입술이 건조하고 각질이 많은 편인데도 바르는 순간 글로스하다고 느껴질 만큼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이 특징.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얼굴에 생기가 감돈다. 3.5g 4만5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이지연*



One & on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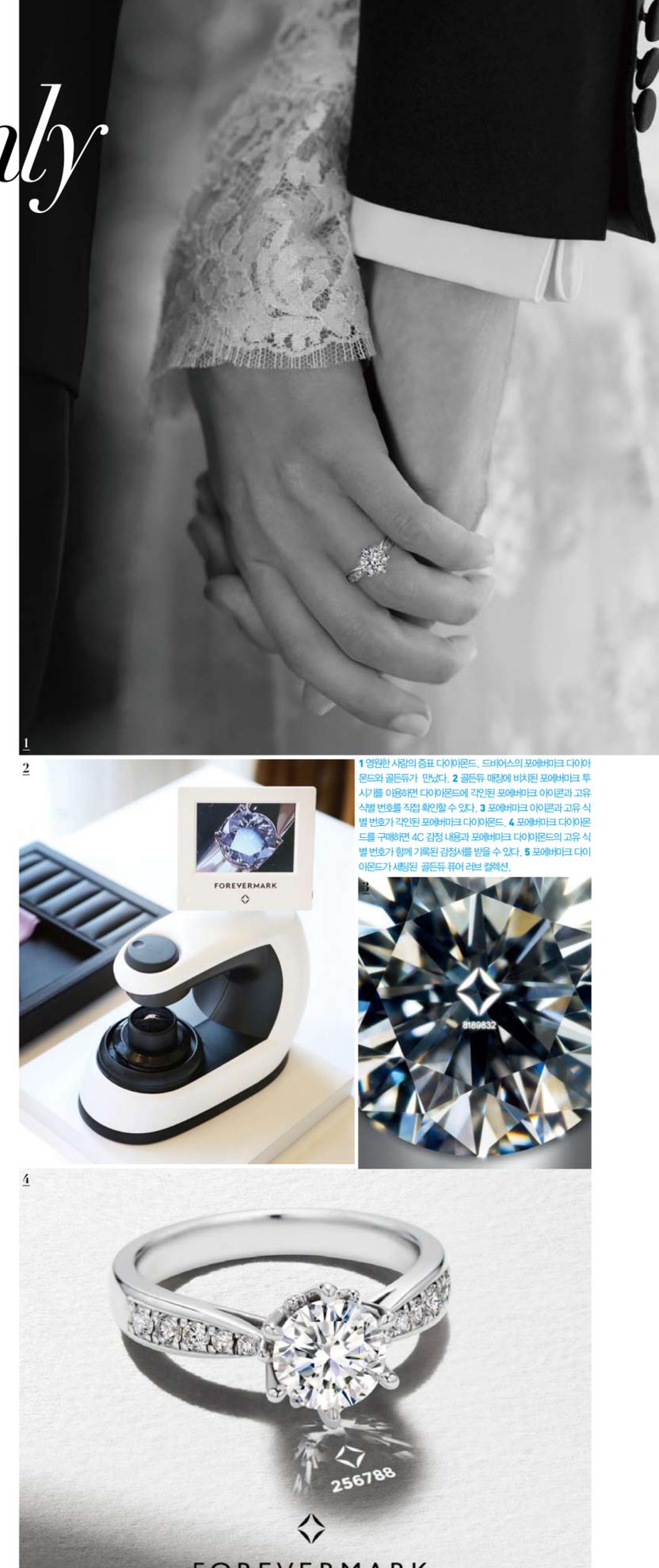
다이아몬드는 오직 나를 위한 단 하나의 보석이기에 특별하며 그러하기에 또한 대체 불가능하다. 전세계 다이아몬드 중 1% 미만의 가치를 담은, 고귀한 원석을 선별해 다이아몬드 속 깊은 곳에 고유 번호를 새긴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를 소개한다.

1% 미만의 다이아몬드가 가진 희소함

최상위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간단한 방법이 탄생했다. 드 비어스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다이아몬드에 내포된 넘버로 4C의 가치를 충족하면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최대 주얼리 브랜드 골드듀가 지난 9월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에스톤 하우스에서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브랜드 포에버마크(Forevermark)를 국내에 공식 론칭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 포에버마크는 1백27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그룹 드비어스(De Beers)의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브랜드. 무엇보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1% 미만에 해당하는 특별한 다이아몬드로 전용 투시기로만 보이는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 남다르다. 다이아몬드 등급 기준 4C(중량, 투명도, 컷, 컬러)를 최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4C 이외 원석의 투명도, 컷의 상태와 견고성, 정교한 연마 기술, 깨끗하고 완벽한 테이블 등 일반적인 다이아몬드보다 더욱 까다로운 감정을 추가로 여러 차례 거친다.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 그룹에서 개발한 독점 기술을 통해 스톤마다 포에버마크의 아이콘과 고유 식별 번호가 각인되며, 다이아몬드 구매자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식과 개별 식별 번호, 보증서를 통해 해당 다이아몬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 표식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에 불과한 나비로 골드듀 매장에 비치된 특수한 포에버마크 투시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식은 다이아몬드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주얼리를 비롯해 채굴한 원석에서부터 등급 구분과 연마를 통해 전 세계 상위 1% 미만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다이아몬드로 선별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는 현재 전 세계 36개국의 공인된 보석상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골드듀에서 처음 소개해 오직 골드듀 포에버마크 판매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신뢰와 믿음의 다이아몬드, 포에버마크

포에버마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1% 미만이 포에버마크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직 하나뿐으로 유일한 'One & Only' 다이아몬드라는 것이다. 해당 다이아몬드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다이아몬드가기에 고유한 식별 번호가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전문 기업인 드비어스의 프리미엄 다이아몬드라는 점. 국내에서는 골드듀를 통해 독점적으로 만날 수 있기에 접근성도 뛰어나다. 다이아몬드에 대해 언급할 때 분쟁 지역은 물론 채굴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데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책임감 있는 거래와 공급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는 분쟁 없는 지역에서 채굴한 윤리적인 다이아몬드이며 생산 지역의 국가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엄선된 소수의 광산에서만 채굴하기에 더욱 믿을 만하다. 또 투명한 거래를 통해 엄격한 비즈니스 기준과 사회 및 환경 기준을 엄수하도록 추적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특별하고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총 31곳의 전국 골드듀 포에버마크 판매 매장에서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새로운 컬렉션을 만나보자.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세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담아 디자인하는 골드듀 주얼리에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더욱 특별한 가치를 선사할 것이다. 문의 1588-6576 에디터 배미진



1 엄밀한 사람의 중요 다이아몬드. 드비어스의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와 골드듀가 만났다. 2 골드듀 매장에 비치된 포에버마크 투시기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에 각인된 포에버마크 아이콘과 고유 식별 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3 포에버마크 아이콘과 고유 식별 번호가 각인된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 4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면 4C 감정 내용과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의 고유 식별 번호가 함께 기록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5 포에버마크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골드듀 퓨어 러브 컬렉션.

FOREVERMARK
A DIAMOND IS FOREVER

Royal British Day

지난 9월 제주 구좌읍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위스키 로얄 살루트가 왕실 스포츠 폴로와 함께 영국 문화의 정수를 선보였다. 박진감 넘치는 폴로 경기와 전통이 느껴지는 영국식 피크닉, 아름답고 매력적인 스토리가 담긴 만찬이 함께한 로얄 살루트 브리티시 데이.

최고의 스카치위스키를 상징하는 로얄 살루트. 이 멋진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브리티시 럭셔리(British Luxur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화려하거나 거창한 럭셔리와는 차이가 있다. 본질과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는 첫째, "Authenticity-touched by time"- 전통과 본질을 중시해 오래된 것, 시간의 가치를 담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둘째, "Comfort"- 억지스럽게 꾸미지 않은 편안한 가운데에서의 여유가 담겨 있다. 셋째, "Little acts of subversion"- 전통과 본질을 지키면서도 정형화된 것만을 따르지 않고 약간의 반전을 기미한다. 넷째, "Subtlety and wit"- 은은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에티켓으로 언제나 위트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제주도 구좌읍에서 로얄 살루트가 개최한 로얄 브리티시 대화에는 이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다. 행사의 메인 이벤트가 영국식 문화의 결정체인 폴로 경기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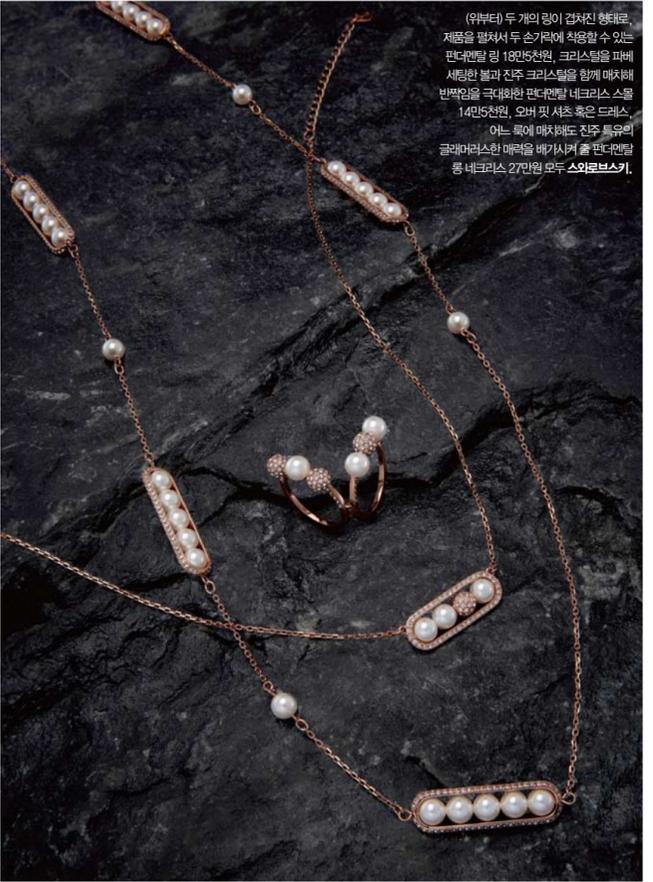
(Malcolm Borwick)이 참가해 경기 수준을 높였고, 한국 선수들과 더불어 토미 마르티네즈(Tommy Martinez), 미구엘 앙헬(Miguel Angel), 디에고 고메즈(Diego Gomez) 등 세계 각지에서 초청된 프로 선수들이 힘과 격조가 어우러진 경기를 펼쳤다. 치열한 접전 끝에 12:10의 스코어로 타임(TIME)팀이 말콤 보웬이 속한 '로얄(ROYAL)팀'을 제치고 승리를 차지했다. 폴로 경기에 이어 클럽 내에서는 영국식 피크닉(British Picnic)과 영국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아가일 공작의 주최하에 품격 있는 디너파티까지 이어졌다. 로얄 살루트와 함께 어우러진 품격 있는 디너파티에서 제13대 아가일 공작인 토크윌 이안 캠벨(Torquhil Ian Campbell, the 13th Duke of Argyll)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인 제주에서 영국 귀족 문화의 정수를 향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장 투블(Jean Toubou) 페르노리가 코리아 대표는 "로얄 살루트는 앞으로도 폴로 컵 개최 등을 통한 국내 폴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왕실의 가치를 공유하는 등 진정한 영국 귀족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최고의 스카치위스키 브랜드가 주최한 품격 높은 영국식 문화가 국내에서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



1 해외 유명 선수들까지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벌인 폴로 경기. 2 로얄 살루트의 영서사단인 아가일 공작과 폴로 선수 말콤 보웬. 3 로얄 살루트 브리티시 데이로 더욱 풍성하게 한 피크닉 이벤트. 4 만찬에서 간배주로 선보인 로얄 살루트 38년산.



포토그래퍼: 김영숙(인물) / 박민주(제품)



(위부터) 두 개의 링이 걸려진 형태로 제품을 펼쳐서 두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는 펀더멘탈 링 1805천원, 크리스탈을 피베 세팅한 블리 잔주 크리스탈을 함께 매치해 반짝임을 극대화한 펀더멘탈 네크리스 스몰 14만5천원, 오버핏 셔츠 혹은 드레스 어느 쪽에 매치해도 잔주 특유의 클래식한 매력을 배가시켜 줄 펀더멘탈 롱 네크리스 27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소녀에서 여인까지 아우르는 눈빛을 지닌 배우 박신혜. 그녀의 오라만큼이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 주얼리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진주 아이템은 포말한 룩에만 어울린다는 편견을 없애준,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감성을 담은 펀더멘탈(Fundamental) 컬렉션.

modern Chic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 곡선을 따라 크고, 작은 크리스탈 필을 세팅한 반달 모양의 펀더멘탈 네크리스 16만5천원, 깃털을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진주를 장식한 이어카프 13만원, 다양한 크기의 워터 모티브와 크리스탈 필이 마치 찬란한 연꽃을 연상케 하는 브로치 21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02-6930-9831 에디터 배미진, 이지연

The Art of Silk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새롭게 선보인 에르메스의 '크레이지 카레 (Crazy Carré)' 전시. 올해는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갤러리를 가득 채우며 더욱 아름다운 스토리를 풀어냈다.

전통과 열정의 스카프, 크레이지 카레
실크와 에르메스, 아름다운 패턴이 그려진 실크 스카프와 오랜 전통을 지닌 이 아름다운 브랜드의 가치는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에르메스 스카프에 녹아 있는 전통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열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여성들의 삶과 인생을 기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스카프 프로젝트는 2009년 '프티 저널 드 라 소와(Le Petit Journal de la Soie)', 2010년 '제몽 카레(Jaime Mon Carré)', 2011년 '파리 몬 아미(Paris Mon Ami)', 2012년 '스윙 실크(Swing Silk)', 2013년 '레 주 데르메스(Le Jeu d'Hermès, 에르메스의 게임)', 그리고 2014년 '실크 무도회(Silk Ball)'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에는 '크레이지 카레(Crazy Carré)'라는 새롭고 독특한 형태의 스카프 이야기를 8월 말, 부산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오션어스 아트홀에서 풀어냈다. 에르메스는 매년 테마를 정해 브랜드의 영감과 가치를 전하는데, 2016년도 테마는 '자연으로의 질주(Nature at full gallop)'이다. 1백79년 전, 말 안장 제작으로 시작한 에르메스가 최고의 가죽, 가방, 의류, 액세서리를 선보이는 하우스로 변화한 모습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하우스로 거듭나는 모습을 담고자 한 것이다. 올해의 테마를 담은 에르메스의 실크 행사, '크레이지 카레 (Crazy Carré)'는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의 에르메스 스카

프의 정수를 담아 멋지게 펼쳐졌다. 2개 층으로 구성된 오션어스 아트홀은 오직 실크 스카프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게스트들은 조명 이 화려한 매직 터널을 통과한 후, 실크의 파라다이스(Paradise de Soie) 전시장을 만나게 된다. 실크로 스타일링한 모델들이 그네에 앉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외중에 커튼으로 가려졌던 오렌지 살롱(Orange Saloon)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가져온다. 흥겨운 DJ의 음악, 강강 댄서들의 공연까지 더해져 말 그대로 크레이지 카레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에르메스 고유의 스카프 패턴으로 이루어진 다크 게인과 태투 서비스, 페인트가 들어 있는 달갈을 던져 나만의 스카프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스카프 패턴으로 온몸을 덮고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폿 등이 마련되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실크 스카프에 예술적 영감을 담아 매년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에르메스의 크레이지 카레,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아름다워지기에 다음 해에 펼쳐질 실크의 새로운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에디터 배미진



1 아름다운 스카프 패턴과 미구용홀에서 영감을 얻은 에르메스 크레이지 카레 행사장 전경. 2 이타스틱한 스카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모델 컷. 스카프로 연출할 수 있는 모든 스타일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3, 4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에르메스 스카프 컬렉션.

an inspirational journey with Dom Pérignon P2

‘샴페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에르 페리뇽 수사는 지금으로부터 3백 년도 더 전에 와인의 혁신을 거듭 일구다가 우연한 기회에 눈부신 거품과 알싸한 맛이 오감을 휘어잡는 이 매혹의 창조물을 발견해냈다. 그 첫 모금을 맞본 뒤 “입 안에 별을 가득 머금은 듯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그의 DNA를 계승하는 빈티지 샴페인 브랜드 돔 페리뇽의 레이블에는 별 모양의 심벌이 박혀 있다. 최근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그중에서도 ‘별들의 고향’인 할리우드에서 영감 넘치는 돔 페리뇽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배우 크리스토프 월츠를 만나 ‘궁극의 경험’을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빈티지 ‘돔 페리뇽 P2 1998’에 빛대 인생과 예술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을 들어봤다.

샴페인(champagne)이라는 단어가 와인 원산지 이름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 위치한 오빌레 수도원(Abbey of Hautvillers)에서 만든 발포성 와인을 모태로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빌레의 와인’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무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가. ‘핑’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하얀 거품과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이 독특한 와인의 인기는 범상치 않았고, 언젠가부터 누가 이처럼 매력적인 창조물을 내놓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오빌레 수도원의 수도사이자 재정 담당자였던 피에르 페리뇽(Pierre Pérignon, 1638~1715), 그가 바로 이 신비스러운 와인을 만든 주인공이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는 불운을 겪었음에도 특출한 기억력과 지혜, 게다가 남다른 직감과 후각까지 지닌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좋은 와인을 만드는 데 일생을 바치며 오늘날 샴페인 제조법의 토대를 만든 페리뇽 수사의 업적을 기려 훗날 사람들은 성직자의 최고 등급을 뜻하는 ‘돔(Dom)’을 붙여 그를 돔 페리뇽(Dom Pérignon)이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빈티지 샴페인 브랜드인 돔 페리뇽은 바로 이렇게 탄생했다. 돔 페리뇽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진정한 샴페인의 원조, 아니 어쩌면 샴페인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다.

절정의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아주 특별한 빈티지 ‘P2’, 찬상계를 논하다

피에르 페리뇽 수사는 궁정적인 천재였다. 미사에 쓸 와인을 고르던 어느 날 그는 날이 풀리면서 와인이 2차 발효를 하자 탄산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유리병이 터지는 사고를 겪었다. 이런 상태의 저장고를 다들 시한폭탄처럼 생각했지만 그는 이 와인을 한 모금 맞본 뒤 경탄을 금치 못한 나머지, 동료 수도사를 불렀다고 한다. “어서 와보세요, 저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어요(Come quickly, I’m drinking stars!)”. 돔 페리뇽 레이블의 상징적인 별 모양은 이 낭만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아무래도 뛰어난 와인은 인간의 표현력을 저절로 끌어올리는 순수한 힘을 발산하나 보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파리가 낳은 걸출한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보들레르 역시 “와인을 마셔라, 시를 마셔라, 순수를 마셔라”라고 했던 게 아닐까. 또 윈스턴 처칠은 “한 잔의 샴페인은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재치 넘치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러나 돔 페리뇽처럼 특정 연도산 최상급 포도로만 빚어내는 프레스티지 샴페인이라면, 그것도 절정기에 이른 특별한 빈티지라면 어떨겠는가. 지난 9월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만난 세계적인 연기파 배우 크리스토프 월츠(Christoph Waltz)의 경우에는 ‘돔 페리뇽 P2 1998’ 빈티지가 일깨운 자신의 감각을 설명하다가 ‘유레카(eureka)’라는 단어를 내뱉고야 말았다.

“솔직히 브랜드이나 마케팅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전 와인이 일상인 문화 속에서 자랐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장고: 분노의 추적자》를 비롯해 《007 스펀더》, 《빅 아이즈》 등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하면서 아카데미상까지 거머쥔 명배우 크리스토프 월츠, 할리우드에서의 활동이 워낙 왕성한지라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삶의 주 터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는 원래 오스트리아-독일계 유럽인으로 비엔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와인 문화에 꽤 익숙한 편이다. 돔 페리뇽의 새로운 아심작인 P2 캠페인을 대표하는 모델로 선정된 그는 단지 유럽에서 온 음악의 스타여서가 아니라 원숙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복잡미묘한 면면을 품은 최상의 샴페인과 잘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돔 페리뇽 같은 샴페인은 자신에게도 그저 꿈만 꾸는 대상이었던 시절을 기억한다고 그는 말했다. “뒤편까, 닿을 수 없는 존재였죠. 사실 샴페인 자체도 이미 특별한 것이었으니, 돔 페리뇽은 대체나 판타지에서나 등장하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하하.” 그는 지인에게서 선물로 받은 2002년 빈티지 가이아도 돔 페리뇽과의 첫 만남이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불안전함에서 궁극을 이끌어내다, 예술의 진리에도 맞닿는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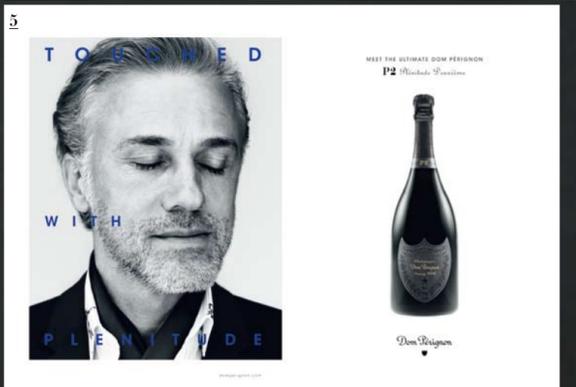
돔 페리뇽의 매력에 흠뻑 빠진 지금에도 그는 자신이 향한 맑고도 빈티지를 척척 맞추는 샴페인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내 느낌, 그리고 내 감각이 속삭이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감흥을 사람들과 공유하면 되지 않겠냐’ P2와의 경험을 신나게 털어놓았다. 돔 페리뇽은 그 특유의 독창성이 세 차례 속상기를 거치면서 감성의 날개를 펴는데, 각각의 속상기는 절정이라는 뜻의 ‘플레니튜드(plénitudes)’의 앞 글자를 붙여 ‘P1’, P2, P3가 부른다(P1은 최소 7년, P2는 최소 12년, P3는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크리스토프 월츠가 ‘천사의 도시 LA’를 무대로 소개한 P2 1998년 빈티지는 16년의 시간을 거쳐 ‘재창조되면서 이제 2차 절정기를 맞이한 특별한 샴페인이다(한국에서는 지난 봄에 선보였다). 극도로 흐렸다가 화창한 시기가 찾아오는 식으로 무척이나 변화무쌍한 기후를 극복해낸 덕에 날카롭고도 섬세한 매력에 동시에 갖춘 역설의 매력이 돋보인다. 보통 P1의 목표를 ‘조화(harmony)’로 삼는다면 P2의 특성은 ‘에너지(energy)’로 응축할 수 있는데, 특히 P2 1998 빈티지는 중잡할 수 없는 날썬을 헤치면서 극한의 요소를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서일까, 강함과 부드러움의 교차 속에 ‘묘하게 에너지가 폭발한다.

“알다시피 이번 P2는 꽤 긴 시간을 걸렸지만 사실 오래된 빈티지라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은 샴페인 애호가라면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P2 1998은 정말로 다르거든요. 특히 다른 빈티지들을 경험해본 저로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습니다. 정말로 ‘비범(extraordinary)’하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거든요. 마치 지구에서 금성으로 날아가는 느낌이었죠.” 물론 그는 각기 다른 개성이 어려웠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돔 페리뇽 빈티지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P2 1998에게는 정말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특별함이 깃들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아마도 평범한 샴페인과 나란히 있었으면 돔 페리뇽인데 당연하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것과’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모두 경험하니 P2의 비범함이 더 명료하게 느껴졌죠. 이건 예술과도 같아요. 불안전함 속에서도 어느 순간 정점에 다다르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작은 계기로 완전한 창조물이 나오죠.” 얘기를 나눌수록 물 흐르듯 매끄럽게 터지는 그의 비유를 듣고 있노라니 P2 캠페인에 ‘궁극’이라든지 ‘절정’의 감동이라는 단어들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논리가 더 와 닿는 듯했다.

열정 어린 단련, 혁신의 공통분모

돔 페리뇽은 브랜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종종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마케팅만을 위한 영리한 미시여구만은 아니다. 실험 정신 증명한 피에르 페리뇽은 로마 시대 이후로 잊었던 코르크 마개를 사용해 와인의 숙성도와 신선도를 높였고, 특별한 방식으로 포도알을 압착해 붉은 포도 품종에서 화이트 와인을 얻어내는 등 경탄할 만한 수준의 혁신을 거듭 일구었다. 한 프랑스 저술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달걀 밑을 깨뜨려 달걀을 세운 것처럼 이 수도사도 알려진 모든 규칙을 깨뜨려버렸다”고도 표현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수 세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돔 페리뇽은 ‘풍부하고도 섬세한 은빛 광물향으로 일컬어지는 고유의 정수를 간직하며 피에르 페리뇽의 실험 정신을 이어받아 결코 진화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유서 깊은 와인 가문의 자손이자 의사 출신이기도 한 리사 지오프로이는 1990년 돔 페리뇽의 수석 셀러마스터로 임명된 이래 이 가지 있는 브랜드의 역사와 혁신적인 스타일을 수호하기 위해 갖은 공을 들여왔다. ‘절정기(P)’라는 개념을 적용한 희귀 빈티지를 돔 페리뇽 애호가들에게 선보이기로 결정한 인물도 바로 리사 지오프로이다.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근원은 어디인지, 나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식이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다시 창의성이 혁신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리사 지오프로이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천재성’의 임의적인 발현이나 완전한 우연을 믿지 않는다. 대가들의 성장과 철학은 통하는 걸까. 크리스토프 월츠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들 하죠. 물론 그게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알수록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많이 보일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걸 거듭하면서 궁극에 이를 수 있을 테고요. 이게 바로 장인 정신이 오롯이 담긴 예술의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걸 (돔 페리뇽처럼) 와인의 세계에서 하게 된다면, 그 세계의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을 테고요.” 크리스토프 월츠가 그 궁극을 나름대로 해석한 미묘한 표정, 그가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기도 하는 생생한 감성 표현 연기는,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돔 페리뇽 P2 광고 캠페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2 AD www.multivu.com/players/uk/7896251-meet-the-ultimate-dom-perignon **에디터 고성연** LA 현지 취재



1, 3, 4 16년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재창조된’ 돔 페리뇽 P2 1998. 이제 2차 절정기를 맞이해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 특별한 빈티지 샴페인은 극한의 기후를 견디던 끝에 날카로우면서도 섬세한 역설의 매력을 품고 있다. 2, 5 돔 페리뇽의 새 캠페인 ‘궁극의 돔 페리뇽’을 만든다. P2, 두 번째 절정기, 절정기의 감동에 빠져들기를 위한 새 모델인 배우 크리스토프 월츠. 환동한 영미를 민중하는 미묘한 표정을 갖게 포착해낸 사진작가는 빌리 쿨트. 6 지난 9월 초 미국 LA에서 P2 1998 빈티지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별들의 고향’ 할리우드에서도 LA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안 위치에 자리 잡은 한 저택에서 P2 시음회와 샴페인과 어울리는 미식의 장수를 엿볼 수 있는 민중이 열렸다. 캐비어 샐러드, 달콤한 파스너를 곁들인 김프렐, 허브 향 길드는 구운 메추리기요리 등 LA의 스타 셰프 데이비드 헨즈가 직접 솜씨를 발휘한 메뉴 구성이 돋보였다. 사진 3, 6 Michael Kovac for Dom Pérignon



SHOWROOM



JEWEL & WATCH



그라프 레이 주얼리 전시회 그라프는 보석이 품고 있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레이 주얼리 전시회를 개최했다.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 위치한 그라프 살롱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런던 그라프 본사에서 보낸 3백여점 이상의 가치를 지닌 60개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피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리본 모티프가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보 컬렉션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으며, 33캐럿 이상의 루비와 17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광채를 발하는 비스포르 플라워 모티브 네크리스와 이어링, 매력적인 프렌체스 버터플라이 다이아몬드 시크릿 워치 등 최고의 하이 주얼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문의 02-2256-6810

리도 세라미카 리도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하이테크 세라믹 컬렉션인 '세라미카'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콘스탄틴 그라치치에 의해 재탄생한 세라미카는 직선적 외관이 모던한 느낌을 주며, 기종 모델과 동일하게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출시한다.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 제작의 스크래치에 강하며 착용감이 가볍다. 매혹적인 무광의 남성용 모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여성용 모델, 유광 블랙 모델 등 11개 버전으로 구성된다. 문의 02-2164-5195

에르메스 (Crafting Time - 시간을 만들다) 에르메스는 에르메스

스 악세서리 시계에 담겨 있는 장인 정신과 기법을 보여주는 전시 (Crafting Time - 시간을 만들다)를 개최한다. 2016년 에르메스 파리 포부르 매장에서 열렸던 전시로, 국내에서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에르메스 갤러리아 백화점 레노베이션 오프닝에 맞춰 진행된다. 브랜드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완성한 다양한 악세서리 스킴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크리스탈 유리 공예, 에나멜링, 고급 시계 기술, 인그레이빙, 그리고 보석 세팅 등 각각의 시계를 완성한 다섯 가지 장인 기법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슬림 데르메스 밀 플러이드 맥시크 제품도 국내에 첫선을 보이며,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이 시계에 사용된 미-어쳐 패턴 기법을 장인 이직점 시연한다. 문의 02-3015-3283

스와로브스키 메모리즈 워치 스위로브스키는 심플한 디자인과 크리스탈의 화려함이 엮여진 워치 컬렉션 '메모리즈 워치'를 출시한다. 미니멀한 사각형 케이스로 모던한 느낌을 지어내는 이 워치는 크리스탈 메시 스트랩이 더해져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매력을 선사한다. 착용감이 가벼워 데일리 워치로 활용하기에도 제격으로 로즈 골드, 실버, 골드, 블랙 컬러로 구성된다. 전국 스위로브스키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1661-9060

미도 #BelspiredByArchitecture 프로젝트 미도는 새로운 시계 디자인의 영감이 될 세계적인 건축물을 선정하는 프로젝트 '#BelspiredByArchitecture'를 진행한다. 11월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12개 도시에서 선정된 5개 건축물의 비디오클립이 미도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소개된다. 이중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을 선택한 후 코멘트를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 명을 선정해 미도 시계를 증정한다. 또 2016년 하반기에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건축물을 발표, 투표로 뽑힌 건축물을 영감으로 한 시계 3D 디자인을 2017년 3월 시계 쇼비유행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1명을 뽑아 해당 건축물이 있는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2-3149-9599



불가리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불가리는 대담하면서도 강렬한 뱀의 매력을 지닌 주얼리 컬렉션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를 선보인다. 육각형 비늘 패턴이 시선을 사로잡는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컬렉션은 기존에 출시한 세르펜티와 동일한 뱀을 모티브로 한 주얼리, 뱀의 강렬한 눈빛을 컬러 스톤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에미스트를 세팅한 핑크 골드 소재의 뱀 머리 펜던트부터 파베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문의 02-2056-0171

리처드 밀 샹디이트 & 엘레강스 리처드 밀은 9월 3일과 4일 이틀간 샹디이트 고성에서 열린 '샹디이트 & 엘레강스' 행사를 진행했다. 리처드 밀이 2014년 첫 번째 행사부터 주요 후원 브랜드로 활약하고 있는 이 행사는 각양각색의 빈티지 카와 콘셉트 카를 만날 수 있었으며, 자동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우아하게 그려 시선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1만3천5백여 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았으며,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었다. 행사 주최자 피터 오토와 리처드 밀은 이틀간 고성의 풍경을 즐기며 전 세계의 아름다운 빈티지 카를 만나볼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의 02-2230-1288

골든듀 포에버미크 국내 론칭 골든듀는 1백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그룹 드비어스(De Beers)의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브랜드 '포에버미크' 국내 론칭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9월 22일 웨다론 그랜드 워커히 호텔 애스톤 하우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포에버미크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나볼 수 있었다. 포에버미크 다이아몬드는 등급 기준 4C를 최소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드비어스 그룹의 독점 기술을 통해 스톤 마다 포에버미크의 아이콘과 고유 식별 번호가 각인되어 있다. 골든듀 포에버미크 전문 판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588-6576

플레드보 보떼 뎅 크렘 에글라 플레드보 보떼는 무결점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파운데이션 '뎅 크렘 에글라'를 새롭게 선보인다. 가볍고 크리미한 텍스처를 자랑하는 촉촉한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으로, 부드러운 발림성과 뛰어난 밀착감이 돋보인다. 피부를 균일하고 매끄럽게 커버해주며, 마이크로 패시 기술이 피부 건조와 다크닝 현상을 막아주면서 살기 리플렉션 오일의 빛 반사 기술이 피부에 건강하게 빛나는 윤기를 더해준다. 문의 080-564-7700

코스메 데크로레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 스타터 사이트 코스메 데크로레는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 국내 론칭 1주년을 기념해 100ml 스타터 사이즈를 출시한다.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는 브랜드의 장수를 보여주는 리포솜 캡슐 기술이 담긴 특별한 아센소, 환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져주는 아이템, 국내 출시와 동시에 큰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해 눈길을 끌었다. 에센스 마스크, 미스트, 토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의 100ml 스타터 사이즈는 10월부터 데크로레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80-568-3111

샤넬 수블리미지 르 뎅 샤넬은 투영하고 빛나는 광채 피부를 완성해줄 파운데이션 '수블리미지 르 뎅'을 새롭게 출시한다. 샤넬을 대표하는 럭셔리 스킨케어 라인 수블리미지의 고급한 선분을 담아 농축 바닐라 워터가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은은한 광채를 더해준다. 스킨케어 크림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를 갖춰 발림성과 밀착력도 뛰어나다. 47지 베이지 컬러와 2가지 베이지 로즈 컬러로 구성된다. 10월 28일부터 샤넬 코즈메틱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332-2700



BEAUTY

FASHION



랄프로렌 란웨이 컬렉션 랄프로렌은 2016년 9월 란웨이의 재창조를 테마로 탄생한 '란웨이 컬렉션'을 선보였다. 뉴욕 매디슨 애비뉴 도로 위에 세워진 이번 컬렉션은 쇼 직후 란웨이 에 온 컬렉션 의상을 뉴욕 888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랄프로렌 매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상세한 디테일과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이번 컬렉션 의상은 11월부터 랄프로렌 도산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545-8200

라트 바이티 솔더 스트랩 타이 토트백 라트 바이티는 세련된 컬러감이 돋보이는 프린팅이 눈길을 사로잡는 '솔더 스트랩 타이 토트백'을 출시한다. 리본을 묶은 듯한 스트랩이 특징인 이 가방은 대체로 온 컬러 패턴을 완성한 앞면과 라트 바이티의 메인 프린트인 꽃과 여우 프린트를 뒷면에 매치해 유니크한 매력을 지어낸다. 가벼운 소재감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데일리 백으로 활용하기 제격이다.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센터점, 목동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49-5977

아.테스토니 2017 S/S 컬렉션 프레스 프레젠테이션 아.테스토니는 선 디테일과 색채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2017 S/S 컬렉션을 소개하는 프레스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했다. 수제화로 명성을 쌓은 브랜드인 만

금눈에 띄는 아이템은 단연 슈즈. 특히 이번 컬렉션에서는 켈렌퍼라리 브랜드로 변화를 시도하는 브랜드의 노력이 돋보인다. 선명한 원색 계열을 사용한 아이템이 많았으며, 남성 슈즈에는 러버 웨지 솔을 덧대 클래식한 룩은 물론,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린다. 보다 다양한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www.testoni.com)와 아.테스토니 주요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408-6700

살바토레 페라카모 스타필드 하남 매장 오픈 살바토레 페라카모는 북반 소핑몰 스타필드 하남에 페라카모 매장을 열었다. 국내 백화점 입점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필드 하남 페라카모 매장은 남녀의 룩, 슈즈, 백 등 브랜드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템은 물론, 2016 F/W 컬렉션 신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 구성과 제품 디스플레이 등 매장 동선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넓고 쾌적한 스타필드 하남 페라카모 매장에서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살바토레 페라카모 아이템을 만나보자. 문의 031-8072-8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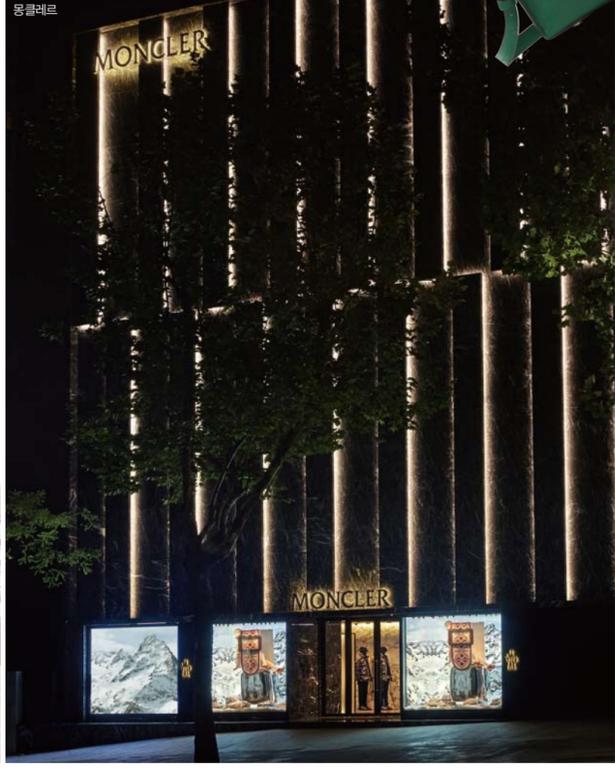
몽클레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몽클레르 서울을 대표하는 쇼핑의 거리 창담 메인 스트리트에 몽클레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 현대적이면서도 에너제틱한 무드다 느껴지는 몽클레르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는 수년간 몽클레르와 호흡을 맞춰온 파리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듀오 기옌 부카티에가 인테리어를 담당해 눈길을 끌었으며,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한 그래픽 디자인이 일릭스 알링의 변화 또한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이 스토어에서는 브랜드의 메인 라인인 몽클레르의 물론, 몽클레르 그레노블, 카즈 라인인 몽클레르



레르 앙팡, 몽클레르 감의 블루, 그리고 특별한 협업 컬렉션까지 볼 수 있다. 문의 02-514-0900

마이클 코어스 머서 백 마이클 코어스는 간결한 디자인이 클래식한 맛을 지어내는 '머서 백'을 제한한다. 2016 F/W 시즌에 선보인 새로운 키 백으로, 부드러운 페블 레더와 사피아노 패턴의 PVC 소재를 조합한 신소재 머서백을 사용해 뛰어난 강축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스트랩은 탈착되며 토트백과 슬더백 2가

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심플한 사각 형태의 디자인이 매력적인 이 가방은 스티로와 라지 두 가지 사이즈에 6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79-1852



궁극의 숙면을 완성하는 에이스침대의 프리미엄 매트리스 '에이스 헤리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삶을 위해 규칙적인 수면만큼 중요한 것이 숙면이다. 하루를 상쾌하고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다면 우선 잠자리부터 바꿔보자. 에이스침대의 프리미엄 매트리스 '에이스 헤리츠'를 바꿔보자.



에이스침대 가장 먼저 침대는 과학이라는 문구가 떠오르듯 에이스침대는 '침대 과학'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이끌어낸 브랜드다. 에이스침대는 '우연히 태어난 명작은 없다'는 안성호 사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체형과 수면 습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안하고 완벽한 수면 환경을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에 매진해온 결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대중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양질의 숙면을 책임지고 있는 에이스침대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에이스 헤리츠'를 주목하자. 새롭게 선보이는 에이스 헤리츠는 자연적인 소재와 신소재의 결합, 첨단 기술, 그리고 침대 과학의 조합으로 탄생했다.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부드럽고 섬세한 강축은 물론, 올바른 수면 자세와 최적의 수면 환경을 위해 숨도까지 정확히 지켜, 완벽한 수면 밸런스를 제공하는 침대 과학의 결정체라고 표현할 만하다.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연 소재다. 100% 메리노 울 원단, 천연 양모, 말뿔, 그리고 오가닉 코튼 원단을 사용해 인공적인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매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갖췄다. 말뿔은 통기성과 탄력이 뛰어난 천연 소재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후 날에 방출함으로써 최적의 습도를 유지해주며, 뛰어난 탄성으로 인력한 장자리를 만들어준다. 천연 양모의 경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시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에이스 헤리츠의 최고 등급인 에이스 헤리츠 블랙은 K 사이즈 기준 9.4피트 분량(25.34kg)의 양털을 사용했을 정도로 최상의 수면 환경을 위해 이집션이 투지했다. 에이스 헤리츠는 첨단 기술로 완성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컬렉션답게 천연 소재에 힘을 실어주는 첨단 신소재가 눈길을 끈다. 양털의 섬유를 연결한 3차원 입체 직물 3D 스페이스(3D SPACER)가 배드샐림 목신한 쿠션 효과를 선사하며, 통기성이 뛰어난 다중 방사형 구조의 미러를 품과 온도, 습도는 물론 충격에도 소재의 변형이 없는 신소재 워드젠폴을 적용해 매일 처음 사용하듯 같은 시뮬레이션도 수월하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하이브리드 Z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신체 곡곡을 부드럽게 감싸듯 맞춤형으로 인장감 있게 신체 무게를 분사해주며 흔들림이나 슬림 현상을 최소화해 최적의 숙면을 실현했다. 이와 함께 매트리스의 자체 수명도 늘렸다. 에이스 헤리츠 출사를 진두지휘한 안성호 사장은 '에이스 헤리츠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최고의 매트리스라고 자부한다. 한동안은 더 나은 매트리스 소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잠인름은 최고로 편하게 자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제품 제작 소감을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블랙,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넘 플러스의 3가지 라인업을 선보이시고 연말에 27자를 추가해 총 5가지 라인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궁극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에이스 헤리츠는 에이스 헤리츠 전용 웹사이트(www.aceheritz.com)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1-1001



HERMÈS BY NATURE

